

소학생

★ 10월치 ★



石童貴 051-2729 x-51

★ 조선 아동 문화 협회 발행 ★

4.07
51호

만화로 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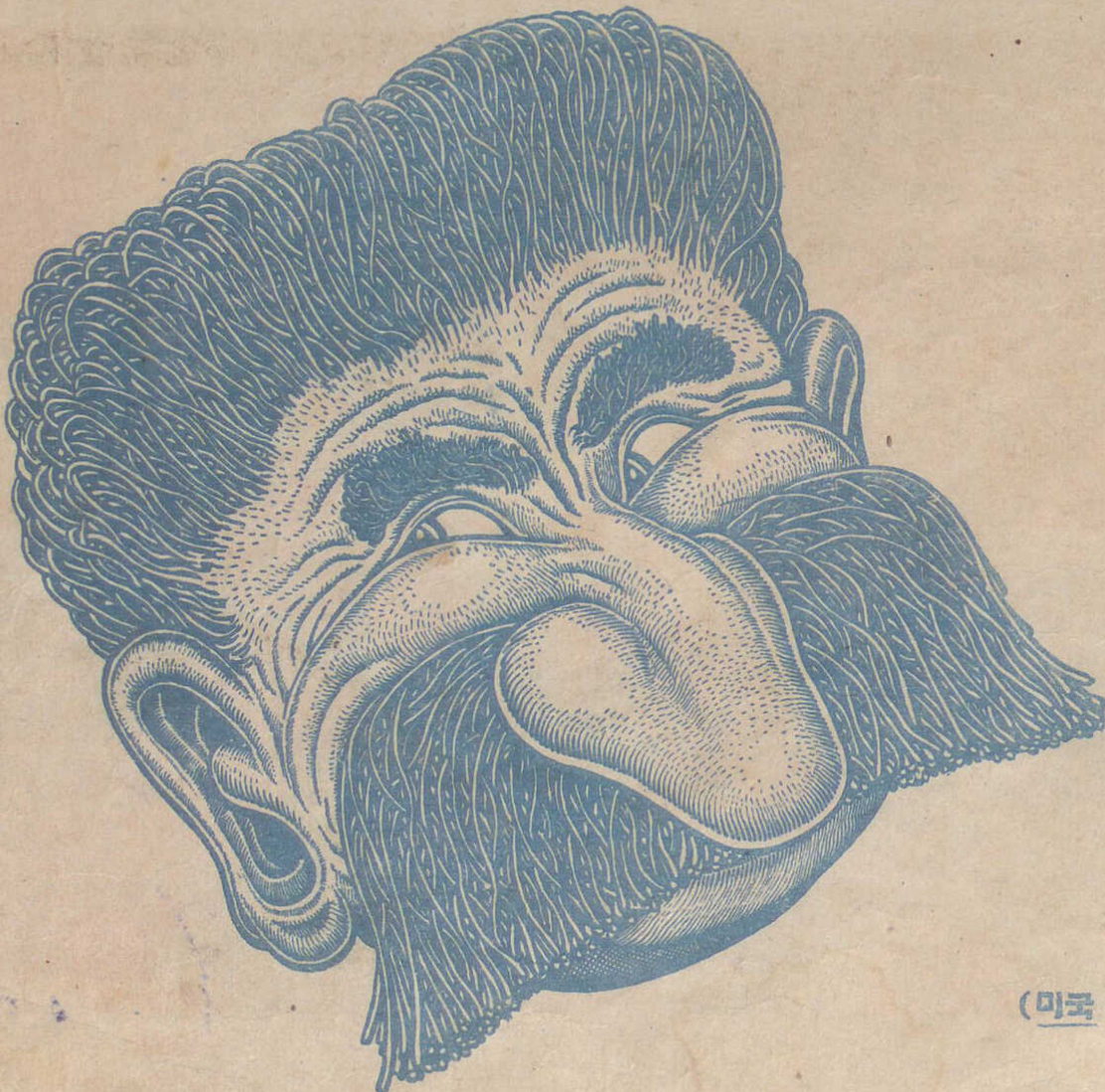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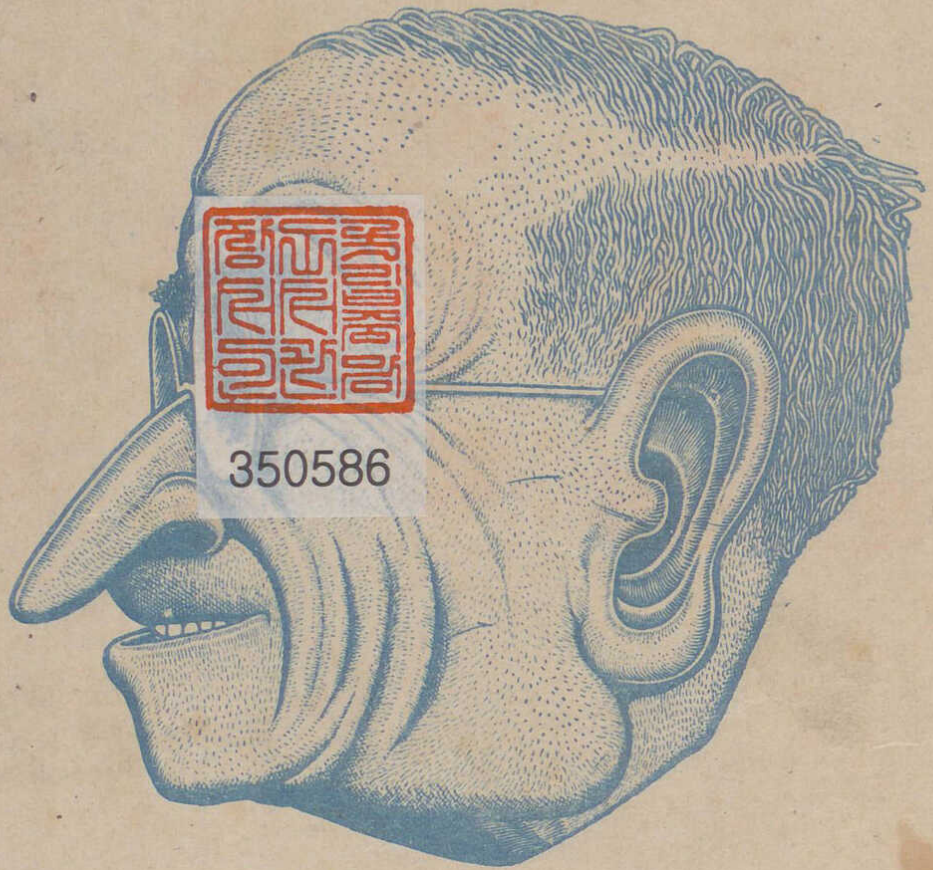
미국

트루만 대통령

과

소련

스탈린 수상



(미국 잡지에서)

— 차 례 —
스포츠 특집

- 스포츠의 역사...이정순(4)
- 해방후 스포츠...민재호(5)
- 올림픽과 조선...유해봉(8)
- 제철과 스포츠...김성진(10)
- 소년과 체육...유해봉(11)
- 장거리 선수가 되려면... (12)
- 세계 기록 일람표... (6)
- 조선 기록 일람표... (7)
- 동요·밭풀 나무...윤석중(23)
- 동요·달 밭...이철수(9)
- 동요·고추 삼자리...권태웅(36)
- 소설·이 순신 장군...박태원(14)
- 소설·꼭대단 비밀...복극성(26)
- 전기·류우리 부인...박동식(30)
- 동화·사자와고슴도치...윤근필(24)
- 동화·존왕과사원장...이양하(32)
- 동화·나폴타의죽음...고환승(46)
- 조선-공부... (17)
- 우리 학교 교가... (31)
- 머릿 못코진 일본... (34)
- 취업의 말씀... (24)
- 소학생 작문집... (35)
- 그림 속담... (39)
- 어떤이 세소식... (42)
- ★제주도와 울릉도...석주명(18)
- ★기 미...시치찬(20)
- ★권문 교실...김계태(21)
- ★동물원 구경...주요섭(40)
- ★차담의 시초... (41)
- 올림픽 데이크... (12)
- 스포츠 만화... (13)
- 술대 잡기... (13)
- 민 병 이용하는 법... (44)
- 속기 쉬운 우리 눈... (35)
- 크로스워드 풀기... (48)
- 이전 환 천상... (48)
- 칙칙 박사... (49)
- 깔깔 박사... (44)
- 소학생 꾸러꾸... (50)
- 만들고 나서...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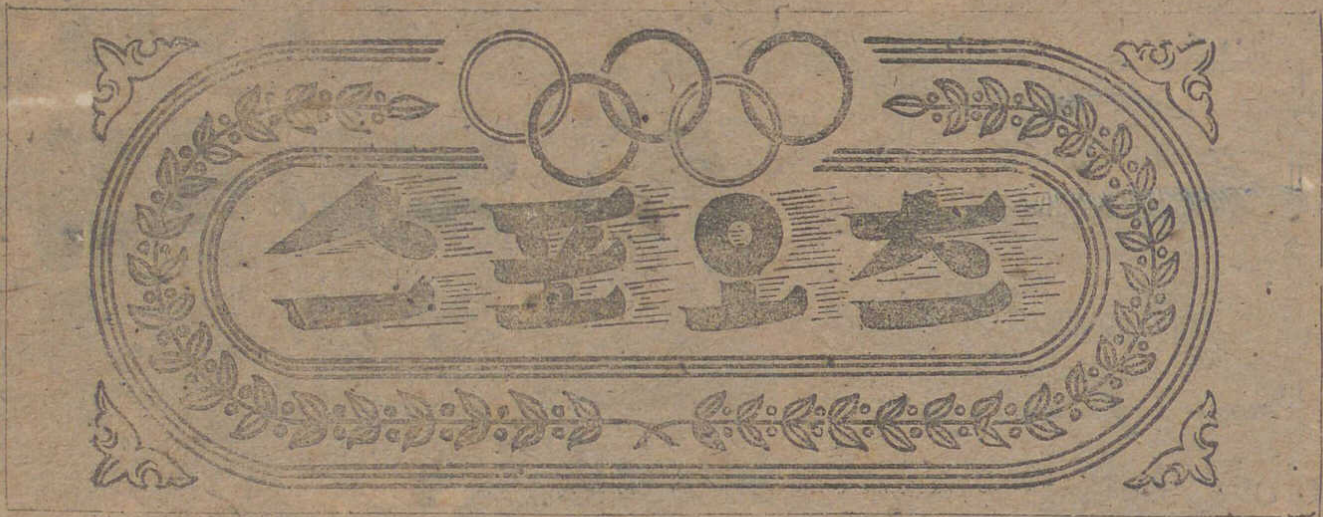
★그림 그리신 분★
김 용준·정 현웅·김 의환
조 병덕·최 수섭·김 기광

소학생

★ 10 월 치 ★



(조 병덕·그림)



스포츠 특집 ①

스포츠의 역사

자유신문 편집국장 이 정 순

스포츠의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닌만큼, 전체적으로 그 역사라든지 혹은 그 유래를 말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분 어린 등부들은 매일 같이 학교에서 배에쓰팔도 할 것이요, 또는 축구, 정구, 송구(送球), 기차 수영(水泳) 하이킹(登山) 스케트 등등 여러 가지 운동을 자기 가 좋아하는 데로 자기 분에 맞도록 하고 있을 것이니까, 이 여러 가지 스포츠를 하나 하나씩, 그 사조라든지, 역에서 발달이 되었다든지 설명하는 것은, 좁은 지면과, 또 이것을 자세히 설명할 시간도 없으므로 이것을 약해 버리고 스포츠에 대한 한두 가지 이야기나 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전쟁을 하려 하는 평화한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옛날 동양이나 서양

을 물론하고, 전서 시대, 즉 싸움이 오던 동안 계속된 때에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스포츠가, 거의 다 전쟁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두 가지 실례를 들어 보면, 육상 경기(陸上競技)에 있어서 투창(投槍)(英語=재블릿, 스포우잉) 같은 것은, 상고 시대(上古時代)부터, 도인 간에 덩수를 잡는 도구로 쓰던 것을, 다시 트인 부타 사이에 싸움을 할 때 쓰는 무기로 쓰게 되었고, 이것이 다시 진화되었다고 할까, 지금은 세계 올림픽 대회 육상 경기 종목에 있어서, 가장 인기를 끄는 경기 종목이 된 것입니다. 그 외에 지난 번 전쟁에 일본이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하기까지에 무수한 공습을 받았을 때, 미국의 전투기, 혹은 폭격기 같은 비행기를 조종하고, 일본 잔재를 치는

미국 비행사들은, 거의 전부가 아메리칸 풋볼(美國式蹴球) 같은, 현상한 스포츠를 통하여, 그 투지(圖志)와 전투력(戰鬥力)을 가른 청년 비행사이었다고 하는 것을 들을 때, 전쟁과 스포츠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원자탄에 비하면 유치하고 원시적이라고 하겠으나, 일본은 한동안 중국과 싸움을 할 때 산악 전(山岳戰) 같은 데서, 흔히 수류탄(手榴彈)을 많이 썼는데, 여기에는 야구 선수로 유명했던 명정들이 한 몫을 단단히 보았고, 또 도하 작전(渡河作戰) 같은 것에는, 수영 선수가 중요한 활동을 했다고 하는 것은, 외국에도 많이 있는 사실입니다. 이외에도 스포츠가 전쟁에 직접 관계된 것은 그 실례가 허다하지만, 직접 우리 생활에 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스포츠가 우리 생활과 직접 관계가 깊다는 것은 옛부터 알려 오는, "전전한 정진은 전전한 육체에만 있을

수 있다."고 한 그 말 한 마디로 증명이 되니까, 이에 대해서는 더 갈래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간 이 스포츠오르를 통해서, 우리는 건전한 육체를 갖추도록 힘써야 하며, 장대한 육체와, 건전한 정신력을 가지고, 우리의 과학, 문화, 예술 등에 세계적 수준 이상의 기록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의미의 스포츠오르는 전쟁의 도구로써 이용하는 것보다는 문화, 예술, 과학의 근본이 되는, 한 토대로서 이것을 장려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세계 올림픽 대회 제 14회 대회가, 영국 서울 런던에서 열리며 여기에 많은 선수가 우리의 레크기를 들고 당당히 참가하는 것을 생각할 때, 내년 올림픽에 참가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38 도선이 남북으로, 우리 조선을 갈라 놓고 미국과 소바에트·러시아가 남북으로 이 땅을 점령하고 있지만, 이번 대회에 나아가 스포츠오르를 통해서, 우리의 사정을 세계에 호소하고, 또 거기서 우리의 뛰어난 실력을 드러낼 때, 우리 민족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동정은 유달리 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내년 런던 올림픽에 가는 우리의 언니 아저씨 누이들을 적극적으로, 후일해야 하며 또 몇 해 후에는, 우리

들 어떤 동무 자신이 크게 자라서, 이 대회에 출전할 실력을 갖추기에, 힘쓰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명년 대회에는 육상 경기의 "마라톤"을 위시하여, 축구, 역기(力技) 연투, 농구(籠球), 빙상(氷上) 등 여러 가지가 출전을 하게 되었고, 그중에 스케딩은 이 달 시월 중에 떠나, 빙상 경기 대회장인 놀웨이(諾威)의 세인·모리쓰에서, 명년 1월부리의 대회에 참가하기로 되었습니다. 이 빙상 경기에는 고려 대학의 이 효창(李孝昌) 이화 여자 대학의 장 인숙(張仁淑) 두 분이 각각

장거리를 뛰게 되었는데, 성적이 자못 좋다고 하니, 많은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지금 영국 런던에서는 벌써부터 내년 대회를 위하여, 운동장 설비에 눈코 뜰 새가 없이 바쁘다 하며, 이 다음 제 15회 대회는 1952년 미국서 개최하기로, 벌써 작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후일 우리 조선에서도, 세계의 젊은이를 한 마당에 불러 놓고, 민족의 평화와 문화의 발전을 위한, 세계 올림픽 대회를 개최할 날이 있을 것을 믿고, 서로서도 그 날을 위하여 모든 준비를 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스포츠 특집 ②

해방 후의 조선 스포츠오르계

서울 중앙 방송국 민 재 호

여러 분! 여러분은 힘을 아시지요? 힘은 권력이요, 힘은 정의입니다. 정신의 힘도 그러하며, 몸의 힘도 그러합니다. 마음과 몸의 힘을 길러 내는 것이 체육 즉 스포츠오르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스포츠오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볼까요. 그야, 뭐, 비단 스포츠오르만이겠습니까 하는 해방의 덕을 가

장 많이 입은 것 가운데 하나가 스포츠오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누구네 보다는



훌륭한 쇠 다리와, 들 주먹을 가지고도 마음껏 뛰지도 못하고, 휘둘러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른바 일체의 쇠사슬 때문이었습니다.

해방이 되자 이내 몸을 활활 해 가지고, 날이 갈수록, 오직 발전의 길만을 걷는 것은 조선의 스포츠입니다.

여러 분들도 이미 아실 것입니다.

먼저 보스톤 마라톤 재패를 한 나라가 우리 나입니다.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에서 마라톤 세계 재패를 한 것은 아직 여러 분들이 어렸을 때

이었지만, 이번에는 여러 분들이 한창 무럭무럭 자라날 때에, 우리 서윤복 선수가 보기 좋게 우승을 해 주었습니다. 조선의 물결을 마치고 조선서 자라나는 여러 분들에게도 한 자랑 거터인 동시에 두근두근 잊지 않아도 좋을 보배로운 기억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축구가 상해에 가서 센 팀은 모조리 이기고 와서 멀리서 온 영주 함대를 8대0, 11대0으로 이겨냈습니다.

무거운 쇠 덩치를 번쩍번쩍 들어내는 장사 아저씨들이 자꾸 세계 기록을 냅니다.

몸은 작아도 주먹은 무쇠 덩어리일시다. 권투도 덩달아 되면 넬비라고, 세계에 뛰치고 있습니다.

육상도 마라톤 뿐이 아닙니다. 높게 뛰기, 넓게 뛰기, 모두 기록이 좋습니다.

농구는 키 큰 사람들이 그냥 섰다가 "링"에 집어 넣을 까봐서 걱정이드니, 이제부터는 키 큰 사람은 그 사람들끼리,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들끼리 싸우게 되어, 조선의 농구도 세계에서 첫째 둘째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평 위에서 뭇인 줄 아십니까? 또 있습니다. 얼음 위에

◎ 육상 경기 세계 기록 일람표 ◎

종 목	기 록	이 름	나 라	날 짜	장 소
100 m	10 초 2	오 오 엘 스	미 국	1936. 6. 20	시 카 고
200 m	20 초 3	오 오 엘 스	미 국	1935.	안·아 보 아
400 m	46 초 0	하 루 빌 히	독 일	1939.	프랑 크롤드
#	#	구 테 마	미 국	1941.	피타델 피 아
800 m	1분 46 초 6	하 루 빌 히	독 일	1939.	미 타 노
1,500 m	3분 45 초 0	안 델 손	스 웨 덴	1941.	스 독 호 들
5,000 m	14분 8 초 8	마 기	핀 랜 드	1939.	베 를 린
10,000 m	29분 25 초 6	마 기	핀 랜 드	1939. 7. 28	헬 신 키
마 라 손	2시간 25분 39초	서 윤 복	조선	1947. 4. 19	보 인 트
高 障 碍	13 초 7	라 운 스	미 국	1936.	오 스 트
#	#	우 울 플 스	미 국	1941.	피타델 피 아
中 障 碍	50 초 6	하 아 린	미 국	1934.	스 독 호 들
中 走 高 跳	2 m 0 3	존 손	미 국	1941.	베 를 린
走 幅 跳	8 m 0 6	오 오 엘 스	미 국	1935.	안·아 보 아
三 段 跳	16 m 0 0	다지마 나우도	일 본	1936. 9. 6	베 를 린
棒 高 跳	4 m 7 1	와 야 다 담	미 국	1941.	(장 소 불 명)
投 砲 丸	16 m 2 0	렐 게	독 일	1936. 8. 2	베 를 린
投 圓 盤	53 m 3 5	랄 벨 드	독 일	1941.	리츠만·쉬타트
投 槍	72 m 7 1	널 가 덴	핀 랜 드	1936.	스 독 호 들
投 鐵 錘	59 m 0 0	브 라 스 크	독 일	1898.	스 독 호 들
400 m 타예	39 초 8	오오엘스·에드칼프·트르티바·와이클	미 국	1936. 8. 8	베 를 린
1,600 m 타예	8분 8초 2	추쿠아·아브로비치·와야나·카 아	미 국	1932. 8. 8	로스안젤스
10 중 경기	7,900 초	로 티 스	미 국	1936. 8.	베 를 린
3,000 m 장해	9분 8초 8	이 소 오 드	핀 랜 드	1936. 8. 2	베 를 린

“스케트”빙상 선수는 이 겨울에 벌써 올림픽에 나갑니다. 여자 선수도 나가게 됐습니다. 소녀 여러 분들도 앞으로 기운 더 내 보세요.

수영도 잘 합니다. 말도 잘 합니다. 자전거도 잘 합니다. 배드 잘 짓습니다.

사람마다 재물은 다 좋아 보인다지만, 정말이지 조선의 스포츠는 모두 자랑 거립니다.

여러 분!

스포츠는 민족의 자랑입니다. 그러면 다른 민족과 싸워 봐야 그들보다 나은 줄을 알겠 ? 다른 민족들과 한

번 겨루어 볼 때는 왔습니다. 내년 7월 영국 런던에서 올림픽 대회가 열리는 줄을 여러 분들은 아시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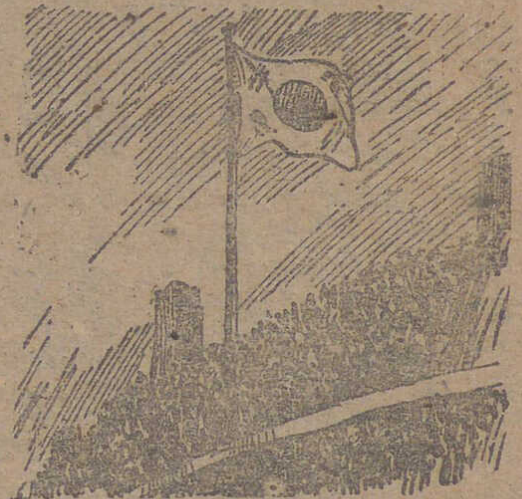
조선도 정식으로 나가게 되었습니.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선 올림픽 준비 위원회에서는 우선 육상, 축구, 농구, 권투, 역도, 빙상, 여섯 종목을 올림픽에 내 보낼 종목으로 제일 차로 정했습니다. 마는 앞으로 더 종목을 늘일 것입니다.

이제야 말로 우리 민족도 다른 민족들과 싸

워서, 우리의 기개를 뽐내 볼 때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의 스포츠오르지는 올림픽을 앞 두고, 아주 긴장할 대로 긴장 했습니다.



◎ 육상 경기 조선 기록 일람표 ◎

종 목	기 록	이 름	구 분	날 짜	장 소
100 m	10 초 5	김 유 태	학 생	1939. 8. 10	대전
200 m	21 초 9	한 윤 섭	일 반	1939. 6. 13	서울
400 m	50 초 3	이 정 희	일 반	1938. 7. 3	서울
"	"	한 윤 섭	"	1941. 6. 15	"
800 m	1분 초 2	이 윤 식	학 생	1947. 5. 10	서울
1,500 m	4분 06 초 0	유 장 훈	일 반	1934. 4. 27	대전
5,000 m	15분 24 초 2	유 장 훈	일 반	1936. 4. 12	대전
10,000 m	31분 20 초 2	유 장 훈	일 반	1934. 4. 14	대전
마 타 손	2시간 25분 39초	서 윤 복	학 생	1947. 4. 19	대전
高 障 得	1.5 초 2	이 장 완	일 반	1938. 8. 21	대전
中 障 得	5.6 초 7	김 중 철	학 생	1936. 10. 13	대전
走 高 跳	1 m 8.7	김 월 응	일 반	1940. 9. 24	대전
走 幅 跳	7 m 6.6	김 원 권	일 반	1940. 6. 1	대전
三 段 跳	1.5 m 8.6	김 원 권	학 생	1943. 6. 19	대전
濼 高 跳	3 m 7.0	조 운 전	일 반	1940. 7. 7	대전
"	"	조 진 남	학 생	1940. 8. 19	"
投 砲 丸	1.3 m 6.1	안 영 환	학 생	1941. 7. 19	대전
投 圓 盤	4.2 m 2.9	유 약 한	일 반	1931. 11. 2	대전
投 槍	5.8 m 3.0	유 약 한	일 반	1933. 9. 20	대전
投 鐵 槌	4.9 m 0.1	인 장 환	일 반	1946. 6. 15	대전
400 m 리레이	4.4 초 4	김 용 태	학 생	1937. 8. 1	대전
1,600 m 리레이	3분 36 초 6	(이 름 불 명)	일 반	1940. 8. 25	대전
10 종 경기	5,064 점	마 중 국	학 생	1939. 10. 16	대전
5,000 m 장애	10분 37초 2	김 두 인	일 반	1940. 9. 24	대전

여러 분들도 어서어서 커서
 가 나라를 대표하는, 훌륭한
 선수들이 되어 주십시오.
 내년 8월 런던 하늘에 승
 리의 태극기가 펄펄 날을 것
 을 여러 분과 함께 바라면서
 이번에는 이만 씁니다.

스포츠 특집 ③
올림픽과 조선
 조선 중앙일보 편집국장
유 해 봉

“올림픽”이라면 으레히 전
 세계 국제 올림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제 올림픽에는
 전 세계 어떠한 나라든지 독
 립을 하였든 못하였든, 자기
 민족을 대표하여 참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젊은
 이들은 제각기 힘을 뽐내어
 뛰고 던지고 차고 받고 하여
 조국의 명예를 위하여 분투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승
 리를 하면 자기 나라 국기를
 운동장 높이 매달고 수만 관
 중은 일제히 일어나 우승한
 나라의 국가를 불려 줍니다.
 이기면 그 얼마나 장쾌한 일
 이겠습니까? 조선 태극기가
 펄펄 날릴 날도 얼마 남지 아
 니하였습니까. 약한 나라를
 쳐 들어가 전쟁에 이기어 뽐
 내는 것보다 이러한 평화스
 러운 올림픽에서 정정당당히
 이기는 것이 더 낫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 분도 지금부
 터 몸을 튼튼히 만들어 다음
 세계 올림픽에 나가서 마음껏
 그 힘을 뽐내고 우리 조선의

이름을
 전세계
 에 떨
 치도록
 합시다.
 조선
 선수로
 체일면
 저 세
 계 올
 립회에
 참가한
 분은,



1932년 미국 로스앤젤스에
 서 열린 제 10회 올림픽 대
 회에 참가한 마라톤 선수 김
 은배(金恩培) 권태하(權泰
 夏) 두 분과, 권투 선수 황
 을수(黃乙秀)씨, 모두 세 분
 인데, 그때 김은배 씨는 6
 등을 하였습니다.
 들쭉번의 올림픽 참가는 여
 러 분도 잘 아시는 유명한 마
 라톤 왕(王) 손기정(孫基禎)
 선수가 양정 중학 5학년 때
 에 전 세계 선수를 물리치고
 우승한 제 12회 베를린 올림
 피 대회로서, 조선 선수가 열
 분이 나 참가하였는데, 그 선
 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케트(氷上) — 김 정연
 (金正淵) • 장 우식(張
 祐植) • 이 성덕(李聖德)
 △마라톤 — 손기정(孫基
 禎) • 남 승룡(南昇龍)
 △바스케트 — 이 성구(李
 性求) • 염 은현(廉殷鉉)
 • 장 이진(張利鎭)
 △축구 — 김 용식(金容
 植)
 △권투 — 이 규환(李圭

煥)
 그러나 과거의 두 올림픽
 에는 그 저곳저곳한 왜놈의
 일장기 미아크를 달고, 참가
 하여 참으로 분하였습니
 다.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에 우
 승하였을 때, 이겨서 좋기는
 하면서도, 가슴에 일장기를
 단 것이 보기 싫어서, 조선 중
 앙일보와 동아일보 두 신문
 사에서는 사진에서 일장 마
 아크를 지웠다고, 왜놈들은
 두 신문을 발행 정지 시켰습
 니다.
 내년 영국 런던에서 열리
 는 제 14회 세계 올림픽에는
 우리 조선도 참가하도록 국제
 올림픽 위원회에서 전면에 정
 식으로 결정되었으니까, 우리
 도 인제는 땀땀이 태극기를
 가슴에 붙이고 마음 놓고 뛰
 게 되었습니다. 그 때에 조선
 이 완전 독립이 되면 그 얼마
 나 더 기쁜 일이겠습니까.
 우리 조선을 올림픽에 참
 가시키려고 전 경부(田耕武)
 씨는 스독호를에서 열리는 올
 립회 위원회에 참석하고자 비

동요 달 밤 이 월 수

달밤에 살랑살랑 바람을 타고
 노랑 처마 으능 잎이 떨어집니다.
 높은 가지 달도 차고 바람도 차고
 풀밭에선 귀뚜라미 자꾸 부르고
 나무 밑 초가 집엔 아기 숨소리
 언덕배기 저편 집엔 다듬이 소리
 어떡허나 망서리다 달빛을 따라
 노랑 처마 으능 잎이 떨어집니다.

(그림·김 의환)



행기도 가지다가, 일본(日本) 동경 근처에서 비행기가 떨어져 그만 돌아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으로 이 월순(李元淳)씨가 가서서 기어코 조선도 올림픽에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런던 올림픽은 명년 7, 8월에 열리지만 빙상 경기(스케이트·스키 등)는 이번 겨울에 열리게 되었으므로, 우리 빙상 선수들은 10월에 조선을 떠나 영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조선에서는 육상(陸上)·바스켓·축구·역도(力道)·빙상·권투의 여섯 종목은 틀림 없이 참가하게 되었으며, 다른 경기도 그 후 성적을 보아 참가하기로 되었습니다. 이 여섯 종목이 다

유망(有望)하지만 그 중에서도 꼭 우승할 자신이 있는 것은 다음 선수들입니다.

△타라손——서 윤복(徐潤福)

△역도——남 수일(南壽逸)·김 성집(金晟集)·박 동욱(朴東昱)

△홉·스텝·점프(三段跳)——김 원권(金源權)

△합기(投鐵槌)——인 강환(印康煥)

경기는 그때 그때의 몸의 변화로 달라지는 것이니까, 어떻게 될지는 예상할 수 없으나, 이상 여러 선수가 유망합니다.

바스켓도 미국이 잘만 다른 나라는 그리 무섭지 아니하며, 권투는 무제가 참은

선수까지 싸우는 것이니까, 어떠한 급(級)에서나 우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구라카가 하도 강하여 어떻게 조선 선수가 싸울는지 가장 의문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빙상 경기도 볼웨이와 핀란드 선수들이 어떠한 연습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나 세계 대전으로 연습을 충분히 못하였을 것입니다.



계절과 스포츠

의학 박사 김성진

그 지리한 장마가 끝나자 늦 더위가 매우 심하더니, 인체는 아주 선선하여 공부하기도 좋거니와, 운동에도 가장 좋은 계절——즉 스포츠 씨이즌이 돌아 왔습니다.

스포츠는 그 종류에 따라, 질때로 계절의 제한을 받는 것도 있고, 전혀 관계 없이 사시 장철 계속할 수 있는 것도 있으나, 대개는 스포츠마다 자기 적합한 계절이 있습니다.

스키이, 스케이와 같은 윈터 스포츠나, 여름의 수영, 배짖기 같은 것은, 계절의 제한을 받는 스포츠요, 말타기, 마라톤 같은 것은, 어느 계절에나 상관 없이, 계속할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육상 경기나 풋볼, 배드민턴, 야구, 농구와 같은 단체 경기는 겨울을 때 놓고는 언제나 할 수 있으나, 역시 봄 가을이 가장 적합합니다.

우리 조선은 계절의 구별이 아주 분명해서 각 계절에 적합한 스포츠를 차례차례로 교루 즐길 수 있어 큰 행복이라 하겠습니다. 항상 조선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 고마운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한 번 외국에 여행해 본 사람이면 이 점을 절실하게 느낀다 합니다.

더운 열대 지방에서는 열 습도 열기 아니하고, 눈도 오지 아니하니까, 스키이나 스케이트는 상상도 못합니다. 연전에 필터된 사람이 겨울에 조선에 와서 산천이 모두 온 세계가 된 설경을 보고 너무나 신기하고 유쾌해서 며칠이 뛰고 눈을 뭉쳐 먹더니, 고향에 선물로 가져 가려고 트렁크 속에 넣더라는 말도 되이든지 아니한 이야기입니다.

또 그와 반대로 추운 한대 지방에서는 결빙기가 오래 되니까 야외 운동은 별로 못하고 레얼카기는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온대 지방은 대개 사철의 구별이 있지만 조선과 같이 절후포에 꼭 맞게 바뀌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런 자연의 혜택을 입은만큼 장래는 마라톤 뿐만이 아니라, 각 종목



의 스포츠가 다 세계 제패할 날이 오기를 믿고 바랍니다.

다음의 각 계절에 맞는 대표적 스포츠를 들어 보코자 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서 나무잎이 피고 풀이 나서 녹음이 깊은 봄철이 되면,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스포츠가 등산입니다.

등산 운동은 체조와 같이 친신을 균등하게 발달시킬 수 있고 한편 정신적으로도 인내심, 지구력, 정복감을 만족시키며 대 자연과 친히 접촉하여 산 생물학을 배우는 이득이 있습니다.

한 겨울 동안 동면 상태로 쉬고 있던 여러 가지 단체 경기——풋볼, 배드민턴, 야구, 농구, 송구, 육상 경기 등은 봄철부터 시작하여 가을까지 계속됩니다.

봄에는 사람의 힘도 겨울 동안 모인 에날기이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니까 스포츠 기술이 숙련 향상되어 좋은 기록을 열게 됩니다.

여름 동안은 수상 경기가 득차저를 합니다. 조선은 세 쪽이 바다요, 5 대강을 비롯하여 어느 곳이나 레얼할 만한 내가 흐르고 있으니까, 수상 경기에도 대단히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충분한 지도를 받을 기회자 없었던 까닭에, 아직 세계 수준에 달할만한 기록을 내지 못하고 있으나, 장래는 크게

기대됩니다.

수상 경기는 알몸뽕이로 운동을 하니까, 스포츠로 자체로서 몸에 이로울 뿐 아니라, 일광욕 즉 자외선을 온 몸에 받게 되므로, 피부의 저항을 강하게 하는 간접 소득이 있습니다. 사실 수영 선수는 피부병이나 감기에 걸리는 일이 적습니다. 봄에 씨를 뿌렸다가 가을에 결어들이는 것과 같이 봄에서부터 시작해 온 각종 경기들 총 결산하는 것이 가을입니다.

겨울이 닥쳐 오면 겨울에 한정된 원리 스포츠가 등장합니다.

스키이장은 38 도 이북에 대부분이 있어, 현재 정세로는 이용하기 어렵고 작년에 저터산 스키이장을 개척한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스케이팅은 여러 곳에 있고 또 얼음의 질도 좋으므로 여러 분도 아마 대개는 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머 세계 올림픽 선수도 정해지고 멀지 않아 떠나게 될 모양이니, 여러 분과 함께 우리 나라 선수가 우승의 월계관을 획득하여, 세계 무대에 태극기를 휘날리며 주기를 기대하고 축복하고자 합니다.



스포츠 특집 ⑥

소년과 체육

조선 중앙 일보사 편집국장 유 해 봉

일생을 통하여 소년 시절처럼 중요한 때는 없습니다. 전축에다 비교하면 주춧돌과 재목을 다르는 때입니다. 주춧돌을 비뚜루 짚으면 나중에 집이 쓰러지고, 재목이 가늘면 주저앉고 맙니다. 어른이 되어서 몸이 건강하고 약한 것도, 이 소년 시절에 거의 결정되고 마는 것입니다. 몸이 튼튼치 못하고는 아무리 공부를 잘 하더라도, 또 재주가 뛰어나 하더라도 중에서도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 분은 아무조록 몸을 튼튼히 만들어서 우리 나라의 씩씩하고도 쾌활한 일군이 됩시다. "몸은 쓸수록 건강해 진다."고 나는 여러 분에게 포어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심호흡(深呼吸)과 체조를 한 후 마당을 쓸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도와드리는 것이

되어, 부모님은 기뻐하실 테이고, 더욱 자기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도 제일 좋은 일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가 좀 멀어도 꼭 걸어다니는 습관을 부치시면, 참으로 그것이 모든 사이에 훌륭한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쓰는 저의 체험담(體驗談)을 하나 하여, 여러 분의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소년 시절에 공부만 하고 몸이 약하고 살이 하얗고 가슴이 앞으로 구부러져서, 언제든지 선생님께 서 가슴을 펴고 학교는 꼭 걸어다니라고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대로 3년 동안을 실행하여, 중학교에 들어가 동대문에서 연평장까지 3년 간을 매일 걸어서 통학하였습니다. 3학년 겨울 어느 날, 선생님이 전교 생도를 모아 놓고, 약 2 마일 되는 거리를 일제히 경주시켰습니



오lympic의 마아크

이 그림은 세계 올림픽의 마아크이다. 세계 5대 인종이 서로 평화롭게 일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그 빛도 각 인종의 빛에 따라, 파랑, 초록, 검정, 누랑, 빨강으로 되어 있으며, 보통 "오lympic의 마아크"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조선 올림픽 마아크

이것은 조선 올림픽 준비 위원회에서 제정한 조선 올림픽 마아크로서, 당년 올림픽에는 우리 선수들은 가슴에 이 마아크를 달고 당당히 오색 무대에 오를 것이다.

다. 물론 저도 뛰었습니다. 그런데 운동도 안하던 제가 1등을 하였습니니다. 그리고 곧 그 몸에 "전 조선 중등학교 육상 경기 대회"에 나가 또 우승을 하였습니니다. 저는 기대하면서도 의외로 생각하였습니니다. 이것은 무엇에 이렇게 하여 주었을까요?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학교에 걸터다니는 동안에, 저도 모르게 다리가 튼튼해진 까닭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사이 밤 거리를 지나다가 보면, 소년 여러 분이 수건을 머리에 걸끈 동여매고, "마라손 왕"이 되려고 폐를 지어 뛰여가는 것을 흔히 봅니다. 그러나 소년 시절에는 너무 긴 거리를 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 분이 뛰시려면 10의 다발을 더 달려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밤에는 공기도 나쁘고 위험도 하거니와, 태양의 광선을 못받아 도리어 해가 되는 일이

많으니 주의하십시오. "마라손 왕"이 되시려면 오히려 많이 걸터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싱겁게 걸터다니는 것보다 공기 좋은 시외의 들과 산으로 등무들과 같이 짐을 짊어지고 하이킹을 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등식 물도 채집하고 고기도 잡고 등무들과 손을 마주 잡고 유쾌히 노래라도 불리면서 걸터다니면, 몸은 튼튼해지고

많은 상쾌해지니, 이보다 더 좋은 운동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공일이면 산과 들로!" 이 말을 잊지마시고 꼭 실행해 보십시오. 그리고 소년 여러 분에게 좋은 운동은 "점프", "야구", "축구", "정구", "수영", "경주" (50 m, 100 m) 등입니다. 기차도 처음에는 천천히 움직이다가 나중에야 빨리 달리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소년 시절은 기차가 움직일 때와 같은 때입니다. 너무 격렬한 운동은 피하고 언제나 몸이 건강하도록 적당하게 운동하여야 합니다. 너무 심한 운동을 하면 머리 제부러져 버려, 몸이 도리어 약해지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니, 어린이 여러 분, 운동이 좋다고 정도에 지나치게 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기질이 바뀌는 이 때, 잠기 들지 마시고 더욱 몸을 튼튼히 하여, 겨울에 대비하십시오.

스포츠 특집 ⑦

장거리 선수가 되려면

조선 하면 마라손을 연상하고, 마라손 하면 조선을 생각할만큼 조선의 장거리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천재적으로 장거리를 잘하는 민족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소학생들까지 마라손 연습을 맹렬히 하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주의할 일을 적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밥을 먹고 나서 곧 연습을 시작하지 말고, 한 4, 50 분 지난 후에 시작해야 합니다. 곧 시작하면 도중에 배가 아파서 못 뛰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 배가 고파도 안

됩니다. 밥은 넉넉히 먹는 것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줄 무늬한 듯하게 먹는 것이 좋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자기가 비롯하기에 달린 것입니다.

뛰는 속도는 처음에는 되도록 천천히 시작해서 점점 빨리 뛰어야지 처음부터 빨리 뛰다가는 도중에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몸은 되도록 앞으로 수기는 듯이 하십시오. 돌튼 단거리 모양으로 너무 굽힐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굽히면 가슴이 늘어서 못뛸니다. 두 손은 허미 근처를 앞 뒤로 젖도록 하십시오. 손을 좌우로 젖는 사람을 가끔 보는데, 그렇게 하면 앞으로 나가는 힘이 적어져서 손해들 보게 됩니다.

눈은 바로 앞을 보면서 멀리에 있는 장애물을 피하도록

뛰며, 도는 때는 안쪽(內側)을 돌며, 교루랑 같은 모퉁이에서 모퉁이로 곧게 뛰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때 대단하지 않게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차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자속은 넓게 뛰는 것 보다는 좁게 뛰는 것이 쉬워지지를 않습니다.

한참 뛰는 동안에는 땀이 많이 나게 되니까 목이 말라서, 물을 많이 먹게 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많이 먹어서는 안됩니다. 물도 보통 물보다는 사탕 물을 한두 모금 먹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끝으로 소학생 여러 분은 마라톤 같은 먼 거리는 달리지 마십시오. 어리서 너무 먼 거리를 달리면 도리어 몸에 해롭습니다.

★재미 있는 유희★

술레 잡기

한 사람이 술태가 돼서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서 있으면, 그 사람을 가운데 두고, 한 열 사람이상이 손을 잡고 빙 둘러 서서 노래를 부르며 빙빙 돌립니다. 가운데 서 있는 술태가 손을 세 번 치면, 돌던 사람들은 노래를 그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 때에 술태가 아무나 한



사람 손가락질을 하면, 거기에서 있던 사람이 떨어져 나와 술레 앞으로 나옵니다. 술레는 그를 찾아낸 다음, 머리 어깨 발 같은 데를 손으로 만져서 그 사람의 이름을 맞춰 보는 것입니다. 이름을 빠르게 맞추면 그 사람이 대신 술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잘못 맞추거나, 아무도 없는 데를 손가락질했을 때는 다시 한 번 술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유희를 서양 말로는 "프렌드·웬스·파츠"라고 합니다.

스포츠포츠 만화

1. 만원 전차 탈 적에는 모두가 럭비 선수.
2. 시험할 적마다 지기만하는 바스켓·볼의 팀이 한 피들 배어, 키다리를 가아드에 채용한 뒤로는 할적마다 우승을 했습니다.



역사소설

이순신 장군

박태원 지음 김기창 그림

세기로 이름이 난 자다. 저의 본국인 명 나라에서도 다른 장수들과 뜻이 맞지 않아, 늘 불화(不和)하게 지내는 사람이다. 이러한 그가, 더구나 말과 풍습(風習)이



제 14 장

명 수군 도독 진 린

(明 水軍 都督 陳 璘)

명(明) 나라 구월명은, 앞서도 여러 차례 우리 나라로 들어 왔다. 그러나, 별로히 공을 이루지도 못하고 돌아 가고 돌아 가고 하더니, 이해에도 다시, 이런에야 말로 왜병을 쟁그려 쳐 물러치겠다 하고, 수륙 양 방면으로 들어 왔다.

곧, 마 귀(麻貴)라는 장수는 동쪽 길로 들어서, 진 상 도 울산(蔚山)에 있는 왜 장 가동 정정(加藤 清正)이를 치고, 둥 일원(董一元)이라는 장수는 가운데 길로 들어서 경 상 도 사천(泗川)에 있는 도진 의홍(島津 義弘)이를 치고,

유 정(劉挺)이라는 장수는 서쪽 길로 들어서, 진 라 도 순천(順天)에 있는 소서 행장(小西 行長)이를 치고, 또, 한편으로 진 린(陳

璘)이라는 장수는, 수군 도독(水軍 都督)의 직함을 띠고 들어 오니, 이는 우리 이순신 장군과 힘을 합하여, 일본 수군을 쳐 깨뜨리기 위함이다.

무술년(戊戌年—임진 왜난이 일어난지 7 년째 되는 해) 7 월 열 셋날이다. 명 나라 장수 진 린은, 마칠내 군사 5천 명을 거느리고 고 금도(古金島)로 내려 와서 우리 수군과 합세(合勢)하였다.

이 진 린이라는 장수는, 본래 타고나기를, 표독하고, 심술궂고, 거만하고, 고집

전연 다른 우리 나라 장수들과 의사 소통이 잘 될 까닭이 없는 노릇이다.

만일, 진 린과 우리 이순신 장군 사이에, 한 번 의견이 서로 맞지 않는 때에는, 군사 상으로 타격이 커서, 마칠내는 왜적에게 패함을 당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큰 일이다. 명 나라에서는 모처럼 우리 조선을 위하여 하여 준다는 노릇이, 우리에게도 도리어 크나큰 두통이요, 걱정거리이었다. 우리와 힘을 합하여 왜적을 물러치겠다고 하니, 그 뜻만은 고마우나, 실상은 반감지 않은 손님이었다.



그러므로 조정에서도 이물
크게 염려 하였다.

왕은 장군에게,

“진 락을 부디 잘 대접하
여, 털끝만큼이라도 감정
을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
라.”

하는 교지(敎旨)를 내렸다.

영의정(領議政——지금의
총리 대신)에게서도,

“아무쪼록 진 락과 잘 사
귀도록 하라.”

하는 서찰(書札)이 왔다.

그러나, 실상, 우리 이 순
신 장군에게는, 그러한 부탁
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다. 장군은, 지금이 어떠한
때인가를 잘 알고 있었다.
나라의 운수가 한껏 위태롭
고 급한 이 때, 명 나라 장
수와 서로 화목하게 못하여,
마침내, 국가의 큰 일을 그
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
다는 것쯤, 장군은 잘 알고
있었다.

이리 하여, 장군은 미리
많은 술을 빚어 두고, 또 군
사들을 시켜 사냥하고 고기
잡게 한 다음, 명 나라 군사
가 이르는 날——, 위희(威
儀)를 갖추어 멀리 나가서
영접하고, 곧, 크게 잔치를
배풀어 그들을 대접하였다.

술과 고기가 다 함께 풍성
하다. 우리 나라에 들어 온
뒤로, 그들은, 이처럼 극진
한 대접을 받아 본 적이 없
다. 진 락과 그 수하의 장수
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를
없는 작은 군사들에 이르기
까지, 모두 취흥도록 마시고

배 불러 먹었다.

모두들 입이 딱 떨어졌다.
마음들이 아주 흐뭇하여져서
서로 돌아 보며, 장군의 칭
찬이 대단하다.

“이 장군, 이 장군 하디나
과연 인물이로군!”

“명장(名將)이저, 명장이
야!”

“아마, 이만한 대장은 우
터 나라에도 없을게야!”

“아암, 없고 말고! 참말
천하에 드문 장수거든!”

——장군은, 우선, 술과
고기도 이렇듯 명 나라 장수
와 군사들의 마음을 샀다.

그러나, 역시, 명 나라 구
원병은, 우리에게도 별로 반
감지 않은 손님들이었다.

그들은, 고금도(古金島)로
내려 온지 며칠이 지나지 않
아, 벌써, 그 아물답지 못한
본색을 드러내고 말았다.
제 바릇 개 주지 못하는 법
이다. 그들은 셋씩 넷씩 떼
를 지어 민간(民間)으로 들
어 다니며, 백성들의 재물을
노략질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대국(大國) 명정
이요, 너희는 소국(小國)
백성이다. 더구나 이년에
우리가 이렇듯 너희 나라
로 멀리 나오기는, 전혀
왜병을 물리치기 위함이
다. 너희를 위하여 우리는
이렇듯 목숨을 내놓고 싸
우러 온 것이다. 그까짓
재물쯤 우리에게 바쳐도
원통할 것이 없지 않겠느냐?”

명 나라 군사들의 멧장은
이러하였다. 재물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수가 들리면,
사람도 곧잘 차고, 머리 숙
이기까지 한다.

왜해(弊害)가 막심하였다.
그렇지만, 수군 도독 진 락
은 그냥 모른 채 내버려 둘
다.

본래, 백성을 지극히 사랑
하는 이 순신 장군은 마음에
슬펐다. 근심이 컸다.

가만히 두자니 백성들이
배겨나지를 못할 것이요, 그
렇다고 하여 명 나라 군사들
의 행패를 금하자니 진 락
과 서로 뜻이 상할 것이다.
그와 뜻이 서로 상하여 가지
고는, 함께 힘을 합하여 왜
병을 물리칠 수가 없다.

참으로 이룰 수도 없고,
저릴 수도 없다.

장군은 여러 날을 두고 애
를 태우다가, 마침내, 어느
날, 군사와 백성들에게 영을
내렸다.

“제각기 집들을 털고, 다
른 데로 떠나 버려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
군은 자기의 행장(行裝)과
침구(寢具)까지도 모조리 배
가운데로 운반하게 하였다.

조선 백성들이 일제히 집
들을 싸며 곳곳의 집들이
털리고, 또 이 순신 장군까
지도, 자기 행장을 배 가운
데로 옮기었다 한다——이
소문이 들리자, 진 락은 마
음에 심히 고이하게 생각하
였다.

그때, 그는 역시 사람을

장군에게도 보내
어,

“대체 무슨 일
이 났기에 이러
하오이까?”

하고 물었다.

장군은 대답하
였다.

“귀국(貴國) 군
사들의 노략질
이 하도 심하므
로, 우리 나라
백성들이 견디
다 못하여, 포
두들 집을 헐어
버리고, 다른 곳
으로 멀리 떠나
려 하는구로.

내가 이 곳에
있기는, 오로지, 백성들을
위함인데, 이제, 백성들이
모두 흩어지고 만다면, 나
홀로 남아 있어 무얼 하겠
소? 그때, 나도 멀리 도
망할 준비를 차리는 중이
요.”

이 말을 듣고, 진 락은 소
스라치게 놀랐다. 그는 황당
히 장군의 처소로 달려 와서
땀씩 장군의 손을 잡고,

“장군이 어디로 멀리 가
버리시겠더니, 그것이 과
연 정말이오?”

하고 물었다.

장군은 얼굴에 슬픈 기색
을 띠고 대답하였다.

“정말이오!”

진 락은 마음에 더욱 놀
랐다.

“아아니,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오? 장군이 나를



버리고 멀리 가신다면, 대
체, 나는 누구와 더불어
왜적을 막아 내리오?”

장군은 정색을 하고 말하
였다.

“아시다싶이, 우리 조선이
임진년 이래로 오늘날까지
7년 동안이나 병화(兵火)
속에 있어, 국토(國土)는
홀짝 왜적의 말굽 아래 짓
밟히고, 인민은 모조리 도
란에 빠져서 허덕이오. 우
리 동포들의 뼈에 맺힌 원
한(怨恨)을 어찌 이루 달
을 하겠으며, 과연 국가의
위급(危急)이 이 때보다
더한 적이 없다 하겠소이
다. 내, 이 나라의 장수된
몸으로, 장군과 힘을 합하
여, 왜적을 물리쳐야 마땅
할 줄은 잘 아나, 다만 장
군 수하의 군사들이 노략

질이 하도 심하여 우리 백
성들을 못 살게 구니, 내,
참아 그대로 앉아서 보고
있을 수가 없소그리. 그래
이곳을 떠나려는 것이지,
아무 다른 뜻은 없소이다.”

진 락은 낮 빛을 붉히고,
“장군! 이 앞으로는 내가
군사들을 엄하게 단속하여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
할 것이니, 부디 한 번만
참아 주시오.”

그러나, 장군은 믿지 않
는다.

“아무리 장군은 그렇게 말
씀하시나, 군사들이 밖
에 나와서 하는 짓을, 무슨
수로 일일이 단속을 하여,
못하게 금하시겠단 말씀이
요?”

그때도 진 락은 간절히 원
한다.

“아니요. 네, 맹세하고 단속을 잘할 것이니, 제할한 번만 참아 주시오.”

장군은 눈을 감고, 한 동안 말이 없다가, 마침내 입을 열어 말하였다.

“장군이 저어 그리시니 말씀이오마는, 그러면, 내, 한 가지 청할 일이 있는데 장군은 허락을 하여 주시겠소?”

“어떤 일이든, 하라시는 대로 하겠으니, 어서 말씀을 하오.”

“그러던 말씀을 하리다. 장군은 부디 내게도 병 나라 군사들 징치(懲治)할 권한(權限)을 주시오. 그렇다면, 두 나라 군사와 백성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으리다마는, 그 밖에는 달리 도리가 없을 줄도 믿소.”

진 톨은 그 자리에서, “그야, 무엇이 어림겠소? 그것은 그리 하시오.” 하고 캐리 허락하였다.

그 뒤로, 병 나라 군사 가운데 죄를 짓는 자가 있으면 장군은 용서 않고 잡아다가

엄하게 죄를 다스리었다. 그 엄하고 두려운 품이 진 톨에게 다 비길 것이 아니다. 병 나라 군사들은, 마침내, 서로 경계하여, 다시는 틈간에 나와서 못된 짓을 안하게 되었다.

7월 열 여드렛날 일이다. 왜선 배여 척이 죽도(鹿島)를 와서 범(犯)한다는 정보가 들어 왔다. 이 순신 장군과 진 톨 도독은, 자기 전선을 영솔하고 나갔다.

금당도(金堂島)에 이르러니, 단지 왜선 두 척이 있다가, 우타를 보고 황급하여 멀리 달아난다. 장군은 죽도 만호 송여중(鹿島萬戶宋汝宗)으로 하여금 명선 여덟 척을 거느리고 절이도(折爾島)에 잠복하여 만일을 경계하게 하고 돌아 왔다.

진 톨이 또한 전선 36 척을 그 곳에 머물러 두어 우타 수군과 함께 적을 막기로 한다.

그로써 옛세 지난, 스무 나흘날 일이다. 장군은 진

톨을 위하여 “운수당(運壽堂)”에다 크게 쌀치를 베풀었다.

술이 여러 순배 돌아, 주객(主客)이 다 함께, 취흥(醉興)이 한창 부르늑을 무렵에, 진 톨 수하의 천충(千捰)이 절이도(折爾島)로 부러 돌아 와서 고한다.

“도독 안전(都督 案前)에 말씀 올리오. 오늘 새벽에 왜선 여섯 척이 들어 오는 것을 모조리 잡았삼고, 왜적의 수급(首級)도 예순 아홉이나 베었소이다.”

문고, 진 톨은 기쁨을 참지 못하며,

“어히, 장한 일이로구! 그때, 내제, 누가 그렇듯 공을 이루었던 말이냐?” “모두가 조선 수군의 공이외다.”

“그럼 너희들은?” “아뢰기는 황송하오나, 풍세(風勢)가 심히 불순(不順)하와, 미처, 나가서 싸우지를 못하였소이다.”

진 톨의 얼굴이 모닥불을 끼얹은 듯 알카 붉었다. “저런 죽일 놈이 세상에 또

조선 땅



조선 땅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세계 지도를 펴 놓고 보면 아시아의 동쪽에 그 터 크지 못한 나라이라는 것쯤은 알 수 있으나, 과연 그 면적(面積)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 분은 드물 것입니다. 크

설은 본토 외에 섬들이 많은데, 본토와 섬을 합치면 대략 22만 평방(平方) km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나라의 면적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국의 본토 24만 5천 평방 km ○불란서의 본토 55만 1천 평방

km ○이태리의 본토 31만 평방 km ○베르제의 본토 3만 평방 km ○일본 38만 평방 km ○중국 1,110만 평방 km로서, 중국은 조선의 약 50 배나 되고, 베르제보다 5 배나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있나? 저놈을 빨리 잡아 내어라!”

진 련은 손에 잡았던 술잔을 내어 던지고, 식탁을 밀어 옆치며, 소리를 버럭 질렀다.

조금 전까지 흥겹던 잔치자리가, 단번에 깨어져 살풍경(殺風景)하기 짝이 없다.

장군은 이 꼴을 보고, 온화한 기색으로 조용히 말하였다.

“노야(老爺)가 명 나라 대장으로, 왜적을 토멸(討滅)하러 우리 나라로 오셨으니, 함께 힘을 합하여 적과 싸우는 마당에, 우리 수군의 승첩(勝捷)이, 곧, 노야의 승첩이 아니겠소이

까? 이제, 내, 우리가 얻은 바 왜선과 수급(首級)을 모조리 노야에게 드리오려다. 노야가 이 곳에 오신지 아직 얼마 안되는 데, 이번 첩보(捷報)를 귀국 황제께 주달(奏達)한다면, 과연 얼마나 기뻐하시리까?”

진 련의 노기(怒氣)는 금지에 풀려났다. 그는 기쁜 빛이 얼굴에 가득하여, 장군의 손을 덥석 잡고,

“내가 우리 나라에 있을 때, 공의 명망(名望)을 높이 들었더니, 오늘 보며, 과연, 듣던 바와 같소그려.”

칭송하기를 마지않으며,

연해 장군에게 술을 권하고, 자기도 취하도록 마시었다.

진 련이 진중(陣中)에 오래 있으려 장군을 껴서 보니 그의 호령(號令)과 절제(節制)가 모두 흠복(欽服)할만한 것들이고, 또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전선이, 그 수효는 비록 많으나, 자기 혼자 힘으로는 모저히 적을 당해 내기가 쉽지 않겠다.

이러하여, 진 련은 메양 왜적과 싸울 때면, 반드시 수리 판옥선(板屋船)에 올라 군호(軍號)와 지휘(指揮)를 모두 장군에게 맡기고, 자기는 도리어 그 절제(節制)를 맡기를 원하였다. (계속)



제주도(濟州島)와 울릉도(鬱陵島)

서울 과학 박물관 석 주 명

우리 나라는 큰 반도(半島)로 되고 많은 섬들이 붙어 있는데 그 많은 섬들중에 대표될만한 섬이 많이 있습니다. 즉 제주도와 울릉도가 그것인데, 제주도는 남쪽 바다에, 울릉도는 동쪽 바다에 꼭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뚜렷한 섬이 우리 반도에서 꼭 떨어져 있다는 것이 벌써 재미 있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이 두 섬이 바다 멀리 꼭 떨어져 있는 화산도(火山島)란 점으로 조선의 대표가 될 것이며, 둘째로는 제주도는 조선서 제일 크다는 점으로 대표가 됩니다.

울릉도는 크기가 제주도의 25분의 1이 못되지만 제주도보다도 17 배나 더 바다 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

올라온 것이니 바다 밑에서부터 생각한다면 제주도나 울릉도가 그 크기가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나 섬의 크기로도 제주도와 울릉도는 조선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조선의 대표가 되는 두 섬은 다른 섬이나 다른 나라의 섬에서는 볼 수가 없는 특별한 점을 갖고 있어서 학술상(學術上)으로 다른 나라에 자랑할만한 섬들입니다. 이제 그 점을 좀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주도보다도 17 배나 더 바다 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

올라온 것이니 바다 밑에서부터 생각한다면 제주도나 울릉도가 그 크기가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나 섬의 크기로도 제주도와 울릉도는 조선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조선의 대표가 되는 두 섬은 다른 섬이나 다른 나라의 섬에서는 볼 수가 없는 특별한 점을 갖고 있어서 학술상(學術上)으로 다른 나라에 자랑할만한 섬들입니다. 이제 그 점을 좀 이야기 하겠습니다. × 제주도는 큰 화산(火山)인 한라산(漢拿山)으로 되었으



제주도

나 제주도가 즉 한라산이요, 한라산이 즉 제주도입니다. 이 큰 화산인 한라산에는 흑 짙이 붙은 새끼 화산이 300 개 이상이나 있어서 이 점으로는 두말 할 것 없이 세계 제일(世界第一)이요, 이 섬에 있는 현무암(玄武岩)으로 된 김영리(金寧里)의 사굴(蛇窟)이란 굴은 그 길이로 세계 제일이요, 식물(植物)의 종류가 많기로도 세계적(世界的)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제주도는 세계 제일 되는 것을 몇 개나 가지고 있고 그 외에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세계적으로 자랑할만한 것을 적지 않게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라산을 그 밑인 바닷가에서부터 산꼭대기 1,950 메터까지 오르면서 그 곳의 식물을 본다면 불과 하루에 오르는 곳인 데도 아열대(亞熱帶)에서 한대(寒帶)에 여행하는 것과 같아서 말하자면 중국 남경(中國南

京)에서부터 북으로 가서 북경(北京)을 지나 흥안령(興安嶺)을 지나 시베리아에까지 여행하는 것과 같아서, 이 한 섬에서 그 풍경(風景)이 많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으니 아주 재미 있는 일입니다.

x

그런데 울릉도에는 짐승의 종류가 거의 없고 뱀이나 개구리의 종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세계적입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뱀이나 개구리가 없으니 그것만으로도 이상한 섬이 아닙니까?

그와 반대로 다른 곳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말하자면 이 울릉도에만 있는 식물이 적지 않습니다. 더우기 “너도밤나무”란 식물은 조선반도에서나 일본에서는 다 전멸(全滅)하고 지금은 화석(化石)으로만 나는 식물인데 이 울릉도에는 살아 있는 “너도밤나무”가 아직 있는 것으로도 세계적으로 유명함

니다.

이와 같이 울릉도는 그 곳의 동식물의 형편이 다른 곳과 달라서 세계적으로 유명하였는데 개구리만은 10년 전에 그 곳 학생이 “참개구리”라는 보통 개구리 20 마리를 우리 밭에서 한 마리에 1 전씩 주고 사다가 그 곳에 놓아 둔 것이 새끼를 치고 차차 퍼져서 지금은 온 섬에 다 분포(分布)되었습니다.

현재는 울릉도에는 단지 한 종류의 개구리만이 널리 살고 있지만 장래에는 다른 종류의 개구리도 들어 갈 염려가 있고 또 개구리를 먹고 사는 뱀의 종류도 들어 갈 염려가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나라에는 이런 학술적으로 아주 재미 있는 두 섬이 있다는 것은 자랑할만한 일일 뿐만 아니라 이 두 섬을 잘 분석(分析)해서 연구(研究)하면 큰 진리(眞理)를 알아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울릉도





는 것이니, 나
도 다시 용기
를 내어 싸워
서, 기어코 적
을 물리치리
라”고 굳게
결심하고, 그
길로 차방으

가운데에서 겨우로 매달려거
나, 제 집에서 멀리 않은 나
뭇잎 그늘 같은 데 숨어 있다
가, 파리 벌레 같은 먹물 것
이 걸리면 덤벼드는 것입니
다. 거미는 곧 독 있는 잇발
로 깨물어 죽인 다음, 그 피
를 빨아 먹는 것입니다.

거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
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백 년
전에 스코틀랜드 나라에, 로
버트. 부루우스라는 훌륭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
임금은 어느 때 적군과 여
섯 번이나 싸웠으나, 싸움마
다 지고, 드디어 국외로 도
망하여 깊은 산 속 조그마
한 오막살이에 숨어 있었습
니다. 어느,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임금
은 그 오막살이 안에서 낙
수물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조용히 앉아 있으려니까 문
득 앞에 거미 한 마리가 지
붕에서 내려 오는 것이 눈
에 띄었습니다. 내려 오던
거미는 앞 기둥에 줄을 매
려고, 줄에 매달린 채 몇 번
을 건너 뛰었으나 여섯 번
째까지 실패하였습니다. 그
러나 거미는 그대로 단념하
지 않고 다시 한 번 뛰어서
일곱 번째에는 훌륭히 목적
을 이루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임금은, “음지!
이런 조그마한 벌레도 여섯
번이나 실패하고도, 실패하
지 않고 기어히 뜻을 이루

로 흠어진 병정들을 다시 모
아, 일곱 번째 싸워서, 보기
좋게 적을 물리쳤습니다.

여러 분들도 거미가 또한
수단으로 집을 짓는 것을 본
일이 있지요? 거미는 집을
지어면 먼저 높은 곳에서 줄
을 내리고 기기에 매달려서,
아무 데나 닿는 곳에 줄의 끝
을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줄 중간에서 다시 줄을 여러
개 늘어뜨립니다. 그러던 그
줄들은 바람에 날려서 적당
한 물건에 가 붙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줄을 늘어 놓고
사방으로 뻗친 줄을 점점 매
고 둥글게 규칙적으로 줄을
늘여서 집을 만들어 가는 것
입니다.

그 줄은 대체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가를 살
펴 보기도 합시다. 거미
의 배 밑에는 보통 여
섯 개의 특색 있는 것이 있
는데, 그 끝에 많은 구
멍이 뚫려서, 그 구멍으
로 액체(液體)를 내 보
내는데, 그것이 공기에
닿으면 줄이 되는 것입
니다.

이렇게 집을 다 리는
거미는 대개 제 집 맨

거미는 그렇게 흉칙한 놈
이어서, 우리가 딱대기 같은
것으로 살짝만 건드려도 얼
른 줄을 타고 땅에 떨어져서
몸과 발을 오그리고 죽은 듯
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
으면 다시 일어나 줄을 타고
올라 가서 시치미를 떼고 있
습니다. 그리고 제 집이 상해
하면 곧 수선을 하는데, 아주
곳 쓰게 되거나 또는 하루리
기다려도 먹을 것이 안 걸리
면, 다른 곳아다가 집을 다시
짓는데, 그 때에는 먼저 집은
꼭꼭 깨물어 둥글게 뭉쳐서
땅에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
대로 뒤서 먹을 것이 걸려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는 것
이겠지요.



또 한 가지 재미 있는 일은 거미는 저희끼리 서로의 가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거미 집 속에서 두 마리 이상이 같이 사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한 알주머니 속에서 떨어져 나온 많은 새끼 거미들은 나오자마자 제각기 사방으로 흩어져 가서 집을 조그맣게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흩죽하고 의가 좋지 못한 거미지만 어느 동물이고 다 그런가와 같이, 새끼만은 굉장히 귀여워합니다. 알을 낳고는 그 둘레를 깨끗이 쓸로 감아져 날씨가 변하거나, 다른 동물의 해를 입지 않도록 만속하기에 힘을 씁니다. 그리고 알을 낳는 곳도 대개 나무 틈이나 풀잎 뒤 같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입니다.

서양에서는 누에에서 명주실을 뽑듯, 거미줄로 실을 만들어 쓸 수는 없을까 하고 오래 전부터 여러 가지로 연구해 오는 중인데, 어떤 사람은 양말 장갑 같은 것을 만들어 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먼저도 말한 바와 같이 성질이 나빠서 여러 마리를 같이 기를 수도 없고 또 누에에는 식물(植物)을 먹으니깐 간단히 기를 수 있지만, 거미는 동물(動物)만 먹으므로 많이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더욱 철저히 연구하고 개량에 성공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거미줄로 훌륭한 실과 옷감을 만들어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천문교실

문교부 편수국 편찬과 김 계 택

5. 별의 일주 운동

수많은 별이 붙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천구가, 잠시도 쉬지 않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 중심은 북극성이라는 것은 아셨지요? 그래서 별은 동쪽에서 돌아 서쪽으로 집니다. 그렇게 별이 움직이는 것을 별의 일주 운동(日週運動)이라고 합니다. 별 중에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기는 하나, 밤이면 언제든지 보이고, 서쪽으로 지지 않는 별이 있습니다. 그러한 별을 주극성(週極星)이라고 합니다. 북쪽으로 가면 점점 주극성이 많아집니다. 반대로 적도 부근으로 가면 주극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전에 말한 북두칠성이나 가시오케아는 주극성입니다.

6. 별의 연주 운동

별 하늘이 잠시도 쉬지 않고 일주 운동을 할 뿐 아니라 철에 따라서도 변합니다. 여러 분이 주의하여 보면, 여름에 보이던 별은, 겨울에는 보이지 않고, 여름에 보이지 않던 별이 나타납니다. 여름에 반짝이던 견우성 적녀성은 겨울에는 보이지 않고, 여름에 보이지 않던 오리온이 나타납니다.

밤 일정한 시각에 어느 장소에 나타난 별은 한 1년 후 그 날 밤 같은 시각에 같은 장소에 다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추분날 밤 9시에 하늘 가운데에 나타난 별이, 다음 해 추분 같은 시각에는 반드시 그와 똑 같은 자리에 돌아 옵니다.

이것을 별의 연주 운동(年週運動)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달력이 없을 때에는 이와 같이 어느 별이 어느 시각에 나타나는가를 모아 두고, 다음에, 그 별이 같은 자리에 나타날 때까지를 1년으로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별이 어디 나타나면 씨를 뿌리고, 어떤 별이 어떠한 자리에 오면 모를 심는다고,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달력이 없어도 별을 보고 철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별이 연주 운동을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이것은 지구가 해의 둘레를 공전(公轉)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 자전(自轉)을 하면서 해의 둘레를 1년에 한 바퀴 공전합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었겠습니까? 기차에 타고서, 밖의 경치가 뒤도 가는 것을 보고, 기차가 앞으로 달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지구가

움직이는 것은, 해의 자리가 변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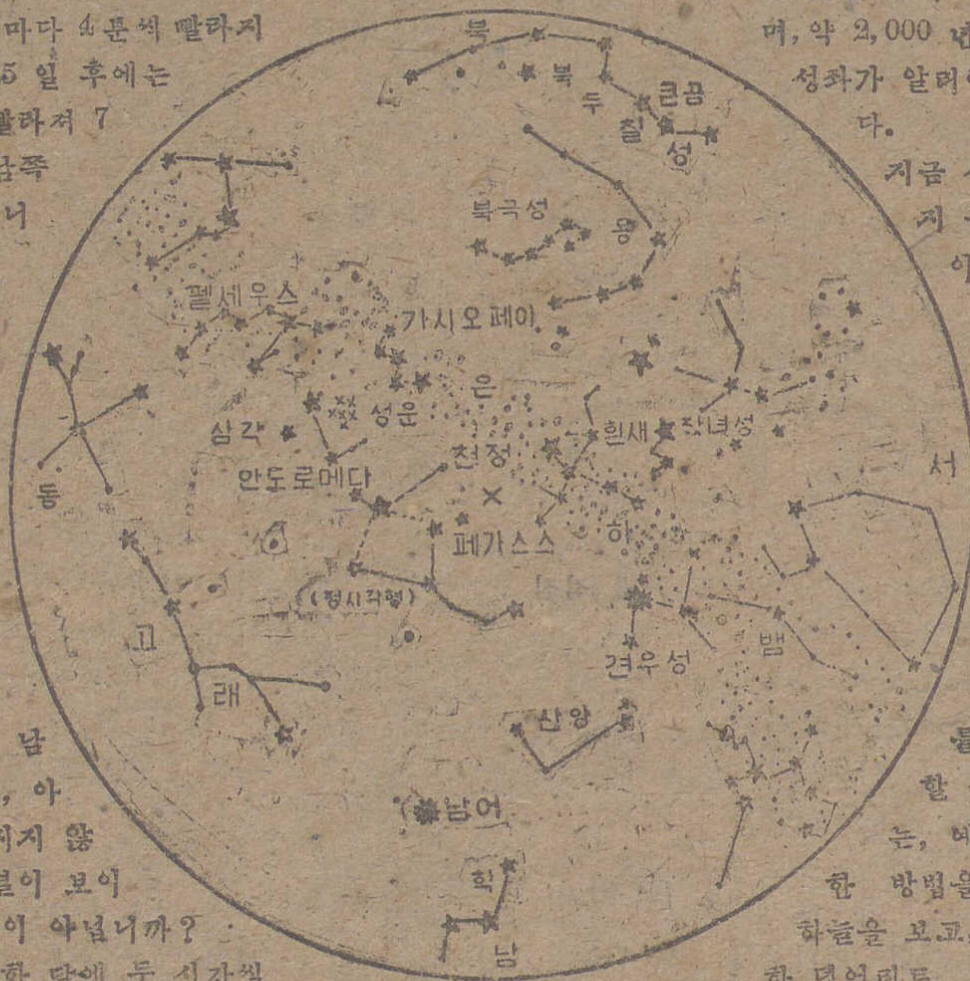
별의 일주 운동은 대략 24시간 걸립니다만, 정확하게 말하면, 23시간 56분, 곧 하루에서 4분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8시에 정남쪽에 온 별은, 내일은 7시 56분에 정남쪽에 옵니다. 그렇게 날마다 4분씩 빨라지는 코로 15일 후에는 한 시간 빨라져 7시에 정남쪽에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한 달 후에는 2시간 빨라지고, 두 달 후에 4시간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4시에 정남쪽에 오나, 아직 해가 지지 않았으니, 별이 보이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한 달에 두 시간씩 빨라지니, 여름에 보이던 별은 겨울에는 너무 일찍 돌아 대낮의 나와 있을 것이므로, 우리에게 안 보일 것이 아닙니까? 그런 까닭으로 자 칠에 따라 보이는 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7. 성좌(星座)

하늘에 보이는 별 중에는

“항성”(恒星), “혹성”(惑星)들이 있습니다. “혹성”은 우리 지구와 같이 해 같은 “항성”의 둘레를 도는 코로, 우리가 보기에 그 자리가 대단히 변합니다. 그러나 “항성”은 그 상호 위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이 늘어 있는 모양은 항상 같습니다. 하늘에 보이는 별은, 1000 중



에 999까지 “항성”입니다. 그 별의 수가 많아서,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지구 위에서 아시아 대륙이니, 아메리카 대륙이니, 구라파니 하며, 또는 영주, 중국, 미국 등의 나라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과 같이, 천구에 보이는 별도, 그 자리에 따라 몇 덩어

리로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별을 한 덩어리씩 나눈 것을 성좌(星座)라고 합니다.

가시오페아는 아치오페아 성좌의 별이고, 북극성은 작은곰 성좌, 북두칠성은 큰곰 성좌 중에 있는 별들입니다.

이렇게 별을 성좌로 나누는 것은 오래 전부터 있었으며, 약 2,000년 전에도 48의 성좌가 알려져 있었습니

다. 지금 성좌가 여러 가지 동물이거나 사람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모두 두루 쓰는 까닭이었는데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천문학이 발달되어서, 별 자리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러한 방법을 몰랐으므로

하늘을 보고, 몇 개의 별을 한 덩어리로 보아, 개 같이 생긴 별, 곰 같이 생긴 별 등, 사람들이 별을 보고 상상하는 모양으로 별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람마다 별을 보고, 여러 동물이거나 유명한 사람 모양을 상상한 데에서 성좌의 이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별 중에 88개의 성좌가 있습니다. 그 중 유명하고 찾기 쉬

등 요 밥 풀 나무 윤 석 중

밥 먹는 우리 아기 볼에 가슴에
 밥풀이 다닥다닥 얼렀습니다.
 뜰에서 꼬꼬 닭이 밥풀 나무를
 침들을 삼켜 가며 바라봅니다.

★

밥 먹는 우리 아기 볼에 가슴에
 밥풀이 다닥다닥 얼렀습니다.
 나 같으면 한 알도 안 흘린다고
 참새들이 흥을 보며 날아 갑니다.

(그림·정 현웅)



은 성과를 몇 개씩 가르쳐
 드려졌습니다.

8. 가을의 성좌

성좌포 보는 법—22 페이지
 에 있는 그림을 여러 권에
 들고 방향을 맞추어서 하
 늘에 있는 별과 대조해서

봅시다. 밤이니까, 희층
 진동으로 비춰 보면서 대
 조하면, 성과를 찾기 쉽습
 니다.

안도르메다 성좌 — 가시오
 페아의 동남쪽에 있는 아
 름다운 성좌입니다. 그 중
 잘 보이는 별이 대략 한 줄
 로 늘어 있습니다. 페가스

스의 세 별과 메모판을 이
 루고 있습니다.

대성운(大星雲)—이 가운
 데에 유명한 대성운이 있
 습니다. 마치 구름 같이 희
 미하게 빛나는 한 덩어리
 가 그것입니다.

페가스스 성좌—하늘 한가
 운데 은하의 남쪽에 세 별
 도 정 메모판을 만들고 있
 는 것이 보입니다. 이 은하
 의 별이 페가스스 성좌입
 니다.

펠세우스 성좌—가시오페
 아의 동쪽, 은하 가운데에
 동서로 길게 한 줄기의 별
 이 있습니다. 펠세우스는
 기디사 신화(神話)에 나오는
 용사(勇士)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비교적 찾기 쉬운
 성좌입니다. —계속—





★웨익스피어(문호)

사람은 마음이 즐거우면 온 종일 걸어도 지치지 않지만,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단 십 리도 못 가서 실증이 난다. 사람이 살아 가는데도 이와 마찬가지로 언제나 즐겁게 마음을 가져야 한다.



★에디슨(발명가)

그 어느 발명이고 완전한 것은 하나도 없다. 자꾸 고쳐야 한다. 가령 말하면, 지금 우리가 켜는 전구(電球)도 불완전한 것이다. 열 없는 빛이 좋지만은 그것이 발명되기에는 아직 멀었다.



★린컨(정치가)

나는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다. 그 소원이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아 있는 것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세상이 나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 있으면 하는 것이다.



★말코니(발명가)

어제 안 되던 일이 오늘 되고, 그 전에 공상(空想)으로 들리던 일이 지금 사실(事實)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 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사람의 노력이다.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는가?



★페스타로치(교육가)

하느님을 믿기 전에, 우선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감사할 공부를 해야 한다. 왜 그러냐 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으랴?



이야기 사자와 고슴도치 윤근필

어느 조용한 가을이었습니다. 아침에 잠을 깬 사자는 일어나는 길도 가지개를 켜고, 크게 하품을 한 번 하고나니, 배가 훌쩍하고 퍼 시장함을 느꼈습니다. 내려다 보니 넓은 들판에는 곡식이 누룽누룽하게 익어, 바람에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참 내려다 보고 있던 사자

는 “허어, 저렇게 많은 곡식이 익어 있건만 당장 내 배를 채울 것은 없구나. 가을로 들어서니는 소화가 너무 잘 돼서 걱정이란 말이야.”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면서 꼬리를 늘어뜨리고, 어슬렁어슬렁 마을을 향해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반도 못 내려 왔는데, 너무나

배가 고프고 기운이 없어서, 길 옆 바위 위에 첩첩 주저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사자의 바로 앞을 가만가만 지나 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송곳 같은 털이 솟게 솟게 난 고슴도치란 놈이었습니다. 사자는 “그것 참 이상하게도 생겼구나. 대체 뭘 하는 놈일까?” 하고 있

는데, 고슴도치는 사자가 쳐다보는 줄도 모르고 어디로인지 걸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걸어 가는 모양이 꽤 씩씩해서, “이놈, 어디를 가는 거냐?” 하고 호령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놈은 갑자기 퐁그래졌습니다. 더욱 이상하게 생각한 사자는 앞 발로 슬쩍 차니까 때굴 때굴 구름 따름이었습니다.

“에라, 굉장한 편에 아무 것이나 먹어 보자”하고 뺨을 물었습니다. 아! 큰 일 났습니다. 끌려 넘어 갈 줄 알고 삼킨 것이, 웬걸 넘어 가기는 고사하고, 입 안이 따가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도토 벨으려고 했으나 벨아저지도 않습니다. 큰 일 났습니다. 겁이 잔뜩 난 사자는, 나뭇가지도 꺼낼 생각으로 전드렸더니 목구멍이 꽤 집인 줄 알고 기어 들어 가는지, 인제

목구멍까지 찌르기 시작합니다. 사자는 입을 딱 벌린 채 인제는 꼭 굶어 죽었구나 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 환인데, 이젠 천행이라고 할까 재채기를 “작”하니 고슴도치가 탁 튀어 나왔습니다. “내가 이래도 짐승 가운데 왕인데 이렇게 혼나 보기는 처음이다. 에이, 고안놈. 여기서 어물어물하다가 큰 일 나겠다”고 생각한 사자는 배고픈 것도 잊어 버리고, 어떤 나무가 많이 서 있는 숲 속으로 뛰어 들어 갔습니다. 그러고 어느 바위 위에 올라 앉아서 뺨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웬일입니까? 사자가 앉아 있는 바위 근처에는 그 이상한 동물이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더 자세히 사방을 둘러 보니 그 숲 속에는 수 천 마리 수 만 마리가 있지 않습니까? 한 마리의 한테도 절

절하고 간신히 살아 왔는데 아까 그것보다 작기는 하나 이렇게도 많은 죽을 튀어 들었으니, 다치는 살아날 도리가 없을 것 같이 생각되었습니다. 그때 사자는 바위에서 성큼 뛰어 내려 공손히 절을 한 번 하고,

“당신네가 저기저 건너 산 선생님 자제분이십니까? 아무 것도 모르고 죽을 죄를 졌으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눈물을 흘리며 애걸복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수 많은 것들은 들은 척만 척 대꾸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럴 수 밖에, 그것은 고슴도치가 아니라 팔나무에서 떨어진 밤송이들이었습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 셀이지요.

— 끝 —

(그림·김 의환)



장편 모험 소설

곡마단의 비밀

복극성 지음
정현웅 그림



12. 계교! 계교!

불쌍한 순자가 간신히 눈을 뜨고 다시 숨을 쉬기는, 그 후 한참이나 지난 때였습니다. 우선 죽지 않고 살아난 것만 다행하여, 연놈들은 기뻐하면서 그 퍼 흐르는 물에 옷을 입혀서, 자라 위에 누웠습니다.

잠 쉬게 해 놓고 기운을 차리게 한 후에 또 물어 볼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여관 문으로 급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쿵쿵거리고 뛰어 들어 와서, 단장의 방으로 들어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곡마단에 데리고 다니는 키 작은 난장이었습니다.

“저, 단장님, 얼른 좇아 오세요. 지금 그 놈 달아난 놈 그 놈이, 곡마단 지었던 터 뒤에 2층집 여관이 있거요? 그러토록 조선 영감님하고 들어 가는 것을 보고 왔어요.”

“응, 정말이냐?”
단장과 일동은 눈이 둥글하여 벌떡 일어 섰습니다.

“정말이야요. 지금 막 들어 왔어요.”

“자, 그럼 다 가자. 여럿이 가서 도망 못하게 그 여관을 뺨 둘러 싸자!”

상호가 비밀히 숨은 짐을 알고, 그를 잡으려고 단장과 그 여관에 있던 부하들은 우루루 따라 갔습니다.

별안간에 빈 집 같이 조용해진 여관 안에, 단장 마누라 하나만이 남아 있어서, 순자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 놈의 자식을 이제야 잡게 되어서 시원하다. 잡혀 오거든 내가 그때 그 원수 먼저 갚아야지.....”

혼자 중얼거리고 있을 때, 그때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세까단 양복을 입은 남자 한 사람이 자기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이게 누구야?” 하고 쳐다보니까, 이탄, 그

것이 거기 섰는 것이, 코에 수염은 붙였을망정 분명히 상호였습니다.

“사람 살리오.”
소리를 지르려고 하였으나 틀렸습니다. 어느 틈에 상호는 그의 입을 수건으로 막아 뒤로 매어 놓고, 머리 준비해 가졌던 끈으로 두 팔까지 뒤로 찢어서 걸박을 하여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순자를 일으켰습니다.

“나다, 나야. 상호다!”
하는 소리에 순자는 벌떡 뛰어 일어 섰습니다.

“어서 가자, 그 놈들이 오기 전에.”

상호가 순자를 데리고 여관 문 밖을 나가서 골목을 돌아 서니까, 거기에는 벌써 야까 자전거 타고 종이 전하던 학생이, 인력거 두 채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와 상호가 인력거에 올라 타자, 학생은 자전거를 타고 앞에 서서 인력거를 안내하면서 북쪽으로

북쪽으로 돌아 왔습니다.

13. 경찰서 힘으로

기묘한 피로 순자를 구해 가지고 북쪽으로 도망해 간 상호의 일행이, 북촌 청○동 354번지, 조선 집 조선 방에 앉아서, 급하던 숨을 내어 쉴 때 쫓겨, 저 편에서 난장이에게 속아서, 명동 어귀의 여관까지 쫓아 가서 허탕을 친 단장과 그 부하들이, 하도 분하여 난장을 잡아 묶어서 추켜 들고 썩썩거리면서 도로 자기네 여관으로 돌아 왔습니다.

와 보나, 단장의 마누라는 묶이어서 쓰러져 있고 순자는 간 곳이 없는지라, 그들은 너무도 뜻밖의 일에 눈이 뒤집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의 계교에 빠졌구나.”

생각할 때에 단장은 얼굴이 찢어질 것 같이 노하였습니다.

“당신들이 나가자마자, 어디 숨어 있다가 뛰어나왔는지, 별안간에 그 상호란 놈이 외곽 달려 들더니, 나를 이렇게 소리도 못 지르게 입까지 막아 묶어 놓고, 순자를 일으키어 입고 나잡디다그려.”

“그렇게 양단이 났는데, 여관 주인은 모르고 있었

나?”

“알기는 어떻게 아오? 갑쪽 같이 해서 시치미를 딱 떴고 업고 나간 것음……”

“오늘의 자식!”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단장은 외곽 달려 들어 난장이의 그 큰 머리를 으스러지게 후려갈렸습니다.

“네가 그놈의 부하 노릇을 하였으니까, 그 놈이 있는 집도 알 터이니 내어라 대

은이가 들어 갔다고 그러라고 이르기에, 정말인 줄 알고 뛰어나와서 그렇게 여쭙는 것이야요.”

하고, 사실 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에끼, 이 미련한 놈의 자식……”

하고, 단장은 말길로 왔습니다. 그러나 그놈이 상호와 편 연락 없는 것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놈들이 순자를 때업고 어디로 간 줄을 알아야 쫓아 가지……”

“글썩을시다. 어디든지 있는 곳을 알기만 하면 야 그까짓 것들 당장에 가서 쫓아 새끼 잡듯 잡아 오지요. 그러나 이 넓은 서울에서 어디로 간 줄 알니까?”

머리를 이리 숙이고 저리 숙이고 하면서, 아무런 애를 써도 도무지 알아낼 도리가 없어서, 저희들끼리도 갈갈증이 생겼습니다.

“음지, 음지, 좋은 수가 있소.”

하고, 단장의 마누라가 무릎으로 걸어 나와 앉는 고로, 여러 사람은 무슨 피나 난 줄 알고 일제히 그를 향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

한 번에 맞아 죽은 것처럼 푹 엎드려져 숨도 못 쉬던 단장은 간신히 목소리를 내서,

“아니야오, 저도 정말도 알고 그랬어요. 제 눈으로도 보지는 못했어도 어떤 양복 입은 자가 나를 보고 돈 10 원을 주면서, 가서 단장 보고 꼭마단 터 뒤에 있는 여관으로 그놈과 한

“아까, 그 쪽지 반 쪽이 있지 않소? 왜 그 무슨 354 번지라고 쓰인 쪽지 말이야요. 그것을 경찰서에 갖다 주고 찾아 달라 합시다.”

말을 듣고 나서, 단장은 펄 웃습니다.

“나는 무슨 별 피라고…… 그까짓 쪽지 동네 이름이 없이 허허 354 번지라고만 써어 있는 것을 경찰서에 산들 어떻게 어디 가서 찾아 주……흥!”

하고, 또 코웃음을 쳐 버렸습니다.

“그래두 경찰서에서는 그런 것이 없이도 찾으려면 찾는데, 그런 것이라도 갖다가 주면 무슨 참고가 되겠지. 설마 못 찾을라구……어쨌든지 갖다 주고 자세한 이야기를 합시다.”

단장 마누라가 억지를 세워서 기어코 ○정 경찰서에 그 반 쪽 쪽지를 갖다가 주고, 그 동안 지난 이야기와 오늘 여자까지 마저 데리고 달아난 일을 자세히 자세히

이야기 하였습니다.

“음지, 참 좋은 것을 가져 오셨소. 이것만 있으면 당장에 찾아 드리지요.”

뜻 밖에 경찰서에서는 그 쪽지 반 쪽을 대단히 기뻐하였습니다.

“동네 이름이 없어도요?”

“동네 이름 없어도 곧 잡아 드릴 터이니, 염려 말고 가서 기다리시오.”

이렇게 일러서 돌려 보내 놓고, 그 경우는 곧 종로 경찰서로 전화를 걸고, 북촌 일대에 어느 동네든지 동네란 동네마다 354 번지는 모조리 뒤져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 부탁을 받은 종로 경찰서에서는 곧 각처 파출소에 전화를 하여 어느 동네든지 354 번지를 조사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14. 맞닥드린 불행

청○동 354 번지 외삼촌

택 안방에서, 지옥에서 죽락으로 나온 것 같이 마음을 놓고 있는 순자와 상호는 외삼촌 택 아주머니가, (서로 말도 못 통하니까 ‘역시 한 기호라는 학생이 통역을 하는 것은 틀론입니다.’) 창 속에서 내어 준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진은 상호와 순자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박힌 상호의 집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상호는 그래도 아버지의 무릎 위에 앉아서 의젓하게 박혔는데, 순자는 걸상에 앉으신 어머니 무릎 위에서 배 활개를 내 뻗치고 입을 벌리고 울면서 박혀 있었습니다.

아아, 기억도 없는 부모의 얼굴을 열 여섯, 열 네 살에 처음 보는 실음! 불쌍한 남편의 눈에서는 굶다란 눈물이 낙수물 같이 툭툭 사진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모양을 보는 외삼촌과



아주머니도, 늙으신 눈에 눈
물이 괴어 넘었습니다.

“월수를 쫓아야 한다! 월
수를 쫓아야 한다! 너의
어머니의 월수를 쫓아야
한다. 그리고 너의 아버지
를 찾아 가야 한다. 중국
으로 가겠는지, 미국으로
가겠는지, 도무지 소식을
모르는 외롭게 헤메는, 너
의 아버지를 찾아야 한다.
너의 아버지도 지금쯤은
차차 늙기를 시작할 다인
데…… 너희들 생사도 모르
고 지금 어디서 잘이나 계
신지?” 하루 바빠 너희 아
버지를 찾아야 한다.”

말씀하는 외삼촌 노인도,
울음에 떨리는 소리아니와,
들고 있는 두 남매의 눈에서
는 그 대로 눈물이 비 오 듯
하였습니다.

“오냐, 이 월수는 죽어도
쫓고야 죽는다.”

하고, 상호가 속으로 맹세하
느라고 비 오 듯하는 눈물에
젖은 입술을 단단히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 때, 아아, 바로 그 때
에 대문을 박차는 소리가 나
더니, 내어다 볼 사이도 없
이 마당 앞에 우뚝 우뚝 양
복 입은 험상한 사람이 세
사람이나 들어 섰습니다.

15. 중국으로!

깜깜한 밤! 달도 없는 감
감한 밤을 급행 기차는 지금
자꾸 북쪽으로 북쪽으로 달
아나고 있습니다.

곡파단의 여러 일행과 그

일행에게 다시 잡혀, 에워싸
여 가는 순자를 태워 가지고
이 밤에 서울 역을 떠난 이
급행 열차는 지금 중국 봉천
을 향하여 속력을 다하며 별
로 자주 쉬지도 않고 달아나



는 중입니다.

자정이 지났는지 안 지났
는지 기차는 개성을 지나서
“뒹”소리로 어둠을 헤치면서
달아 나는데, 첫간마다 그쪽
탄 손님들은 거의 모두가 앉
은 채로 고개를 기울이고 코
를 끌고 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그런지 차
속에 달린 전기등도 아까
보다는 몹시 컴컴하여졌습
니다.

보기도 싫은 곡파단 사람
들에게 에워 싸여서, 단장
내외의 앞 자리에 끼어 앉은
순자는, 조비비는 가슴 속을
누구에게 하소연할 곳이 없
어, 타는 불길 같이 쏘쳐 나
오는 한숨을 후유 쉼면서,
몇 번이나 몇 번이나 유리창
밖을 내다 보고 내다 보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리창
밖은 깜깜한 어둠 세상일 뿐
이고, 차 안의 모양만 겨울
속 같이 비쳐어 보일 뿐이었
습니다.

순자는 두들겨 맞아 아픈
두 팔을 늘리어, 긴 한숨과
함께 기지개를 켜면서, 두
눈을 감았습니다.

“이대로 끌려 가서 어떻게
되려노……?”
생각하면 가슴이 캄캄하였습
니다.

어저께 낮에 서울 청○동
외삼촌 댁 안방에서 오빠와
함께 어릴 적 사진을 보면서
울던 일까지는 뚝뚝하게 생
각이 나건마는, 별안간 경찰
서 형사들이 대문을 박차고
우르르 몰려 들어 오던 때부
더의 일은 암담하여도 나쁜
꿈을 꾸고난 꿈 속 일 같이
만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자기 몸이 그
무서운 악마들에게 불떨려
끌려 가는 증인 것을 보면,
꿈은 아니고 확실히 사실은
사실이거나 하고 중얼거렸습
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하
면, 어저께 낮에 형사 세 사

란이 마루 끝에 들어 설 때
에 오빠는 분명히 높다란 들
장으로 휘퓰 뛰어 넘어 갔었
는데.....그 후에 잡히지 아
니하고 어디로 파신을 잘 하
였는지, 달아 나다가 잡히지
나 아니하였는지, 아아, 그
리고 자기와 외삼촌 노인과
한 기호라는 학생과 세 사람
이 형사들에게 끌리어 경찰
서도 걸어 갈 때에 울렁거리
는 가슴,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떨리었습니다.

자기는 여러 가지 조사를
받고 있다가 잃어 버린 물건
이나 찾으러 오 듯이, 내 몸
을 찾으러 온 곡마단 단장의
마누라와 그 부하의 손으로
넘겨 와서, 이렇게 중국으로
끌려 가지마는, 그 때에 잘
이 잡혀 간 외삼촌과 그 한

기호라는 학생은 어떻게 되
었는지 모든 것이 궁금하였
습니다.

곡마단 단장과 부하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으면 남의
식구 피어 났다는 유언죄로
감옥에 보낸다 하던데, 그
후로 외삼촌이 정말 감옥
에 갇혔으면 어떻게 하나?
머리가 하얗게 센 늙은 몸으
로 우리 남매를 구해 내려고
그렇듯 애를 쓰시다가, 결국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는가
생각할 때에, 순자는 몸이
떨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빠의 일, 외삼촌의 일을
궁금해 하면서, 불들려 가는
가벼운 몸이, 슬픈 생각 무
서운 생각에 가슴을 태우는
동안에, 벌써 많은 새어서
어느 틈에 평양을 지낸지도

오래고
지금은
조선의
끝, 신
의주
정거장
을 지
내서,
큰 소
리를
지르며
기차는
압록강
철교를
지나고
있었습
니다.
“아아
이제는

중국이로구나!”

하고, 중얼거리면서, 차창으
로 내다 보는 순자는 그만
소리를 내어 통곡도 하고 싶
고, 유유히 흘러 내려 가는
푸른 물결을 내려다 볼 때에
는, 그냥 몸을 숙쳐 풍당 빠
져고도 싶었습니다.

16. 외로운 활동

청○동 354 번지로 형사의
한 때가 상호와 순자를 잡으
려고 달려 들 때에,

“이래도 잡히고 저래도 잡
히기는 일반이다.”

생각하고 높은 들창에 손을
대자마자, 곡마단에서 하던
버릇으로 소리도 안 내고
휙 뛰어 넘어 상호는, 그
길로 그냥 줄달음질하여 선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급한 대로 들키지 않으려
고 선대문 밖으로 오기까지
는 하였으나 그러나, 단 후에
처음 와 본 길이라 북으로
가야 할지 남으로 가야 할지
미한 걸음도 내어 다닐 길
이 막연하였습니다.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요,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요,
아무 죄 없는 몸이 곡마단에
서 빠져 나왔다고 이렇게까
지 남의 눈을 속여 쫓겨 다
니게 되는가 생각하면, 우습
기도 하고 신세가 슬프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까닭도 모르는 형사들이 사
면 팔방에서 내 몸을 찾고
있을 것이니,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서대문 밖, 감옥소 옆 준 화산 중턱 잔디 위에 앉아서 상호는 온종일 궁리하나 못 하여, 그 밑에 있는 일본 사람의 하숙 집에 들어가 주인을 정하고, 며칠 동안을 파묻혀 숨어 있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튿날이었습니다.

순자와 외삼촌과 그 한기 호가 어찌 되었을까? 반드시 잡혀 갔을 줄 짐작은 하면서도, 그래도 궁뎅하고 잠잠하여서 못 견디었습니다. 새벽이라도 곧 청○동 집을 가 보려고 몇 번이나 모자를 쓰고 나섰으나, 자기를 마치 잡으려고 밤중에 자러 들어 오기를 기다리고 형사들이 지키고 있을 것이 분명하여서, 나섰다가는 도로 들어 서고, 도로 들어 서고 하였 전마는, 그래도 잠잠증이 나서 소식을 알려고 저녁 전기 불이 켜지기를 기다려, 전처럼 얼굴에 수염을 붙이고 대답스럽게 청○동 거리를 걸어 들어 섰습니다.

걸으면서도 이렇게 걸어 가다가 들켜서 잡히면 어찌 할 생각을 하니, 외삼촌 맥이 점점 가까와 질수록 가슴은 크게 뛰놀고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모두 형사 같아서 몸이 오싹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아무 탈 없이 외삼촌 덕에까지 당도하였습니다.

웬일인지 힐적부터 달려 있는 대문을 밀어 열고 들어 서려할 때에, 갑자기 상호의



우리 학교가★

경남 부산 영도 국민 학교

금수강산 삼천리 정기를 받아
이 땅에 새싹 트는 무궁화송이
오대양 육대주에 용솟음치는
무궁화의 꽃밭 속에 향기롭다.

자유를 사랑하는 평화의 사도
복되도다 영도 영도의 건아.

거룩한 조상님께 가룩한 자취
핏줄기 이어 받은 백의의 겨레
세계를 불밝히는 봉화를 들고
한없이 벌어나가 뿌리 길도다.

자유를 사랑하는 평화의 사도
복되도다 영도 영도의 건아.

가슴은 성큼하였습니다.

혹시, 이 청○동 안에 형사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어찌 하나! 하는 생각이 난 까닭

이었습니다.

상호는 네 떨었던 손을 움추리고, 열까? 할까? 망설이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만 뜻밖에도 뒤에서 외락 달려 들어 상호의 오른편 팔을 꼭 붙잡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계속—





쥘 왕과 사원장

(1)

이 양 하 번역

1. 세 가지 물음

옛날 쥘이라는 영국의 왕이 있었다. 그는 나쁜 왕이 있었다. 백성들에게 가혹하고 잔인하여 제 마음 대로만 하면 백성들은 아롱게 되어도 괜찮았었다. 영국 역대 왕 가운데 그중 나쁜 왕이 있었다.

그런데 캔타브리라는 도시에 굉장한 사원(寺院)에서, 호화롭게 사는 돈 많고 늙은 사원장이 있었다. 매일 백 명의 귀족이 식탁을 그와 같이 하였고, 훌륭한 비로드 옷과 금빛 갑옷을 입은 50 명의 기사들이 손님을 모시고 서 있었다.

쥘 왕은 사원장이 이렇게 산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못하게 하리라고 결심하였다. 왕은 사람을 보내어 사원장을 불렀다.

“원장, 어때시오?” 왕은 말하였다. “나는 그대가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산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런 법이 어디 있소? 어느 누구를 말할 것 없이 이 나라에 있어 왕보다 더 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르오? 그렇게 못하리다.”

“오오, 폐하시여!” 사원장은 말하였다. “황송하오나 저는 제 것이 외에 쓰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같이 있는 친구와 기사들을 즐겁게 한다고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쁘게 생각한다고?” 왕은 말하였다. “나쁘게 생각지 않고 어떻게 하겠소? 뉘네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인데, 그대가 나보다 더 훌륭하게 살아 나를 면목 없이 만들어 놓으니, 그런 법이 어디 있소? 사람들은 그대가 내 대신 왕이 되리라고 그렇게요.”

“오오, 천만에 황송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원장은 말하였다. “저는……”

“두 말할 것 없소” 왕은 소리를 질렀다. “그대의 잘못은 분명하오. 그러나 내가 인제 세 가지 물어 대답지 못하며는 그대의 목이 잘리고, 그대의 모든 재산이 내 것이 될 줄로 아오.”

“예, 폐하, 어떻게 대답해 보겠습니다.” 사원장은 말하였다.

“응, 그러면……” 쥘 왕이 말하였다. “내가 지금 머리에 황금 왕관을 쓰고 있으나 내가 인제 얼마나 오래 살겠나 하루도 틀리지 않게 알아 내야 하오. 들쳐로 내가 말을 타고 세계를 한 바퀴 돌아오

면, 얼마나 시일이 걸려겠는가를 말해야 하고, 끝으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대답해야 하오.”

“오오, 폐하” 사원장은 말하였다. “그것은 대단히 힘든 문제를올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게 두 주일의 여유만 주시면 어떻게 대답해 보겠습니다.”

“두 주일? 괜찮소.” 왕은 말하였다. “그러나, 그 때 대답을 못하면 목이 달아나고 그대의 땅이 내 것이 될 줄로 아오.”

사원장은 서럽고 무서운 마음으로 물러갔다. 그는 먼저 옥스포드로 말을 달렸다. 거기는 대학이라는 큰 학교가 있었는데, 그는 그를 도와 줄 수 있는 현명한 교수들을 찾아 보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그들의 책 가운데는 쥘 왕에 관한 아무 것도 없다고 말하였다.

그때, 사원장은 이번엔 또 하나 다른 대학이 있는 케임브리지로 달려 갔다. 그러나 이 대학 선생님들도 그를 도와 줄 수가 없었다.

그는 마침내 슬프고 서러운 마음으로 그의 친구와 용감한 기사들에게 최후의 작별을 하려고 집으로 돌아 갔다. 인제 살 날이 한 주일 밖에 남지 않았던 것이다.

2. 세 가지 답대

사원장은 말을 타고 그의 커다란 집으로 가는 길에 들로 나가든 그의 양치는 목자

를 만났다.

“월장님 안녕히 다녀 오십니까?” 양 치는 하인은 인사하였다. “왕한테서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십니까?”

“ 좋지 않은 소식일세. 좋지 않은 소식이야.” 하고 모든 사연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월장님, 걱정 마세요.” 목자는 말하였다. “어디서는 사람도 어진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는 말씀을 못 들으셨습니까? 제가 나 화를 면하게 해 드리지요.”

“네가 나를 도와?”

월장은 말하였다. “어떻게? 어떻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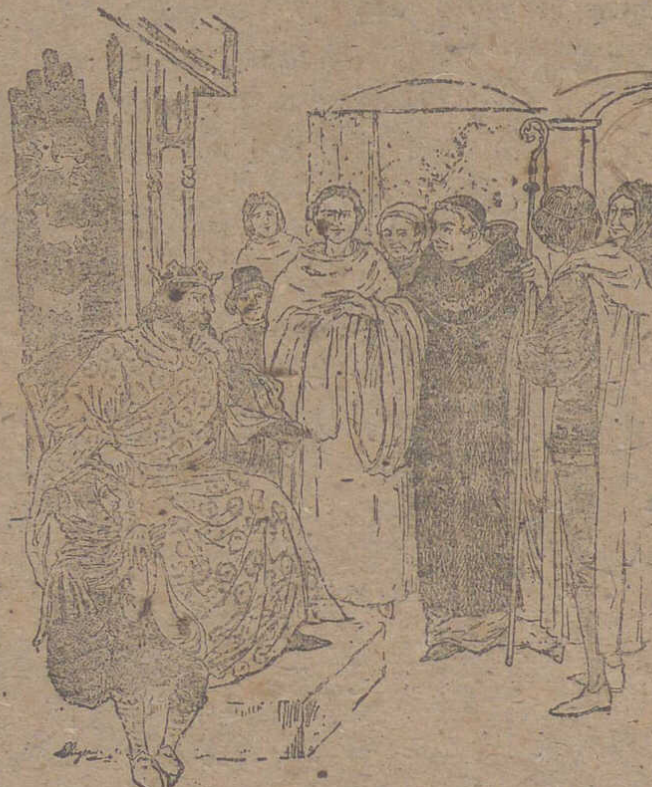
“예.” 목자는 대답하였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저를 월장님으로 알아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제게 월장님의 하인과 말과 옷을 빌려 주십시오. 그러면 헨던에 올라 가서 왕을 뵈겠습니다. 별 도리가 없으면 제가 월장님 대신에 죽기라도 하옵지요.”

“내 착한 목자여” 사원장은 말하였다. “니는 참말로 착하다. 네 생각 대로 한 번 해 보겠다. 그러나 일이 뜻 같지 않아 그릇되게 되면 네가 내 대신 죽을 것은 없고 죽기는 네가 죽는다.”

그래 목자는 곧 떠날 준비를 하였다. 그는 주의해서 옷을 입었다. 자가 옷 위에 사

원장의 갈따란 승복을 걸치고, 사원장의 모자와 황금 지팡이를 빌렸다. 이렇게 차려 나니, 그를 월장님으로 생각하지 아니할 사람이 없었다. 그는 말을 타고 뒤에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헨던으로 향하였다.

왕은 물론 그를 알아 보지 못하였다. “월장, 잘 왔소.” 왕은 말하였다. “이렇게 다시 찾아 온 것은 잘한 일이요.



그러나 대령은 늦지 않았어도 내 세 가지 물음에 대답해 못하면 목은 없을 절로 아오.”

“폐하, 대답할 용의가 있습니다.” 목자는 말하였다.

“응, 응, 용의가 있어...?”

왕은 말하며 혼자 웃었다.

“그러면 내 첫째 물음에 대답해보오. 내가 얼마나 살겠소? 바로 죽는 그 날까지 일러 맞춰야 하오.”

“폐하께서는 돌아 가시는 그 날까지 사시고, 하루도 더 사시지 못하겠습니다.” 목자는 대답하였다. “그리고 폐하께서는 숨 끊어지는 그 순간 돌아 가시고 그 1분 전에도 돌아 가지지 않겠습니다.”

왕은 웃었다.

“재치 있는 말이요.” 왕은 말하였다. “그러면 그것은 되었다고 하여, 그대의 대답이 맞았다고 합시다. 인체 얼마 동안이면 말을 타고 세계를 한 바퀴 돌겠나 이야기해 보오.”

“폐하, 해와 같이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이틀날 야침 해가 다시 뜨기까지 해를 따루 말을 달리십시오.” 목자는 대답하였다. “그러시면 폐하께서 수물 내 시간 동안에 세계를 한 바퀴 도시고 난 것을 아실 것입니다.”

왕은 다시 웃고 말하였다. “참말, 나는 그렇게 빨리 들 수 있드리라고는 생각지 못

하였소. 그대 재치가 있을 뿐 아니라 현명도 하오. 그러니 그 대답도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번은 내 세째 마지막 물음에 대답해 보오. 나는 두일 생각하고 있겠소?”

“쉬운 물음이 을시다.” 목자는 말하였다. “폐하께서는 저를 캔타브리 사원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사실은 저는 그분의 양치는 목자

새로운 조선인물

에 지나지 못합니다. 그분과 저를 한 가지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의 갈라탄 승복을 벗어 버렸다.

왕은 오랫동안 크게 웃었다.

“유쾌한 놀이로다.” 왕은 말하였다. “네가 네 주인 대신 켈라브러 사원장이 되어라.”

“오오, 폐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목자는 말하였다. “저는 글을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릅니다.”

“응, 그러면...” 왕은 말하였다. “이 통쾌한 네 구변에 대하여서는 다른 보수를 주마. 네가 죽기까지 매 주일은 화에 불씩을 주겠다. 그리고 절에 가거든 높은 사원장에게 존 왕한테서 특사를 얻어 왔다고 전하여라.”

주(1) 쥘 왕 (1167-1216). 아버지를 배반하고, 형제를 배반하고, 왕위를 위하여 생질을 앞살한 혐의가 있다. 그리고 도마 원왕 인노센트 3 세가 선정한 대사교를 거부하고, 그 재산을 몰수한 일이 있다.



한참 전쟁에 조물린 때, 그들은 으레 하 떠들기를, 일본 민족은 신이 보호하는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민족이니, 이번 전쟁에는 반드시 이기느니 하며, 저희 나라 백성을 억지로 전쟁터로 몰아 넣고, 나중에는 우리 조선 민족까지 끌고 나가 괴롭히던 그들이, 마침내 연합국에 손을 든지도 벌써 만 2년이 넘었다. 그러면 지나간 2년 동안에, 그들은 자기의 잘못을 어느 정도 뉘우쳤으며, 손을 들며 재빨리 부르짖던 민주 국가 진실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을까? 누구나 궁금히 생각되는 일이다. 물론 미 점령 당국의 성의 있는 지도를 받아, 착착 새 나라가 건설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들은 연합국에 대해서는 절대 순종하고 있으며, 자기의 잘못을 완전히 뉘우치고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들과 안심하고 사귀 수 없다는 것을 다음 몇 가지 사실에서 알 수 있다. 그들은 지금도 기회만 있으면 뻔뻔스럽게 다른 나라가 잘 되려는 것을 방해하려 하며, 남의 나라 땅까지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이니, 제시마 열도 를 달라는 중, 울릉도 옆에 있는 독도가 저희 나라 섬이라는 등, 땅덩지도 많은 때

를 쓰려고 한다. 그리고 더욱 괴심한 것은 일본의 대외 사 오사끼 유기오라는 늙은이는 의회 연설에서 말하되, “조선, 만주, 대만, 유구 열도는 암시적으로 유엔(U.N.) 감시 밑에 두었다가, 일단 루포를 해서, 독립을 바라면 독립을 주고, 다른 나라와 합방하기를 바란다면 합방을 시키라”는 친척 같은 말을 지껄었다 하는데, 이것은 두 말할 것도 없이 조선과 민주 등을 다시 저희 손아귀에 넣자는 수작이다. 그리고 한편 지난 7월 16 일에는, 일본에 사할 온 미국 신문 기자단에게 일본에 남아 있는 오끼나와 사람 41 명을 시켜서, 오끼나와를 다시 일본으로 돌려 보내 달라고 애걸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그들은 매전하고 아직 3 번도 되지 못하는 오늘날 벌써 개 버릇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고 그 수단과 도락에 속아 넘어 갈 우리가 아니지만 그대로 그 어리석음을 웃어 버릴 수도 없는 일이다. 우리는 하루 바빠 나라를 세워서 또다시 그들의 침략을 받지 않을단할 준비를 할 것은 물론이요, 그들이 파룬 길로 가도록 인도할만한 힘을 기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소학생 작품집

★동요 세 편★

서울 효창교 서 성 배

송 아 지

송아지 송아지
노랑 송아지.

송아지 목에는
방울 달렸네.

일하러 나갈 적에
땡글땡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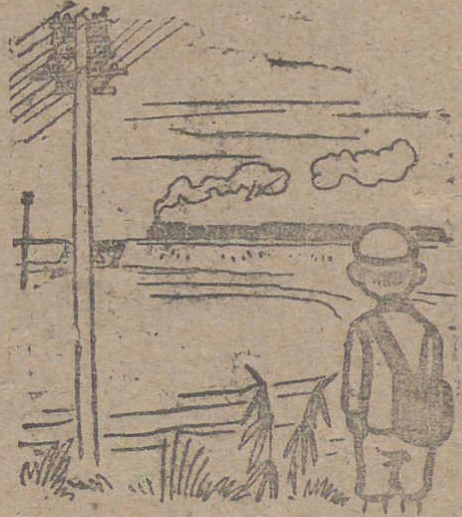
엄마 젖 먹을 적에
땡글땡글.



안개 낀 길

기차 간다
폭풍 간다

안개 낀 길에,
안개가 밀어 쫓아서
저렇게 빨리 가나?



눈

나무에 하얀 꽃이 피었습니다.
나무는 좋아라하고 인사합니다.

나무에 하얀 숨이 뿔었습니다.
나무는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그림·김 의환)

소학생 여러분의 작품을 모집합니다. 작문·동요·습자·일기 등 무엇이든 좋으니 많이들 보내 주십시오. 잘 된 것은 소학생에 내고, 또 상도 드립니다. 아무 제한도 없으며 기한도 없습니다.

응 태 권 리 자 잠 추 고 요 통

혼자서 더 해매는
고추잠자리.
어디서 서리 찬 밤
잠을 잤느냐?

빨장개 익어 버린
구기자 열매
하나만 따 먹고서
동무 찾아라.



(그림·김 의환)

위대한 모녀

큐우리부인과
조리오부인

박 동 식

3. 결혼과 "라듐" 발견

— 마리가 아직 어렸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아침, 한 남자가 두뼘두뼘 그의 집에 들어 왔습니다. 아버지하고 몇 마디 얘기하고 나서, 그 남자는 마리가 있는 방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두리뼘 두리뼘 방 안을 둘러 보더니, 태에를 파 장 같은 데에다가 전부

종이 쪽을 붙이고 나가 버렸습니다.

마리의 아버지 스크로도프스키는 전장에 멍하니 앉아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저 글 왔다 간 남자는, 재판소의 집행관(執達吏)였습니다. 스크로도프스키는 파산(破産)한 것입니다. 그는 고등 중학교의 선생 노릇을 하여, 얼마 되지 않는 월급을 받고 있었습니다만, 그 월급에 어

슬리지 않을만큼 비싼 물리(物理)의 실험 기계(實驗器械)를 사 들었던 것입니다. 물리는 실험에 의하여 가르치지 않으면 안된다. — 그는 항상 이렇게 주장(主張)하고 있었는데, 학교에는 예산이 없었으므로, 그는 자기가 빚을 내서 샀던 것입니다. 그것이 파산의 원인이었습니다.

마리는 물꼬러미 아버지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흘러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 상냥하고 온순해서, 딸을 쳐다볼 적에는 언제든지 웃음을 띄우고 있었습니다만, 오늘날의 아버지는 옆에 귀여운 딸이 있는 것도 모르는 모양입니다. 마리는 아버지가 이러한 모양을 한 것을 본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 왔던 사람은 반드시 꼭 나쁜 사람에 틀림 없다. 저 종이를 붙인 세잔은 그 사람이 또 와서 가져 갈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저렇게 슬퍼하시는 것인가보다.

불쌍한 아버지, 마티이는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마티이의 가슴은 아버지에 대한 동정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스크로도프스키는 문득 마티이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말을 안으며,

“불쌍하구나, 너희들은”

그렇게 혼잣말을 하였을 때, 어린 딸은 대답하였습니다.

“아아니, 아버지. 학문(學問) 때문인데 뭘요?”

그리고, 눈물이 가득 찬 눈으로 빙그레 웃어 보였습니다. 이따한 나이 어린 아이가, 이런 훌륭한 대답을 할 것은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좌산할만큼 학문을 사랑한 사람인 것을 생각하면, — 포마티이가 다섯 살 때 돌아가신 어머니가, 전에 여학교를 경영하였었던만큼, 학문이 있는 부인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린 마티이의 머리 속에, 학문을 높이 여기는 마음이 스며 들어 있었다는 것도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 때부터 마티이는 가난한 살림에는 습관이 되어 아무렇지도 않았습디다. 지금

파티에서 구차하게 산다 할 제라도, 어렸을 때의 가난에 비하면, 아직도 여유가 있습니다. 6 층의 골방은 좁기는 하지만, 왈츠오의 겨울은 파티보다 더 추웁니다. 그 왈츠오에서, 그 여자는 외투 한 벌 없이 몇 해 겨울을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 생활에 무슨 불평을 하겠습니까? 더우기 여기서는 그는 아주 자유(自由)입니다. 누구의 간섭을 받을 걱정도 없고, 자기의 즐기는 학문에 열중할 수가 있습니다. 포올랜드 말이 하고 싶을 때에는 마음 대로 지껄일 수가 있고, 포올랜드 국가(國歌)를 부르려고 싶을 때에는, 언제든지 부를 수 있습니다. 실제 포올랜드에서와 있는 얼마 되지 않는 친구들과 만나서, 포올랜드 말로 말하고 포올랜드의 국가(國歌)를 부르는 것이 지금 그 여자에게 있어서 큰 위트가 되었습니다. 왈츠오의 초학교에 다닐 때 학교에서는 포올랜드 말로 쓴 책을 읽는 것은 절대

로 금하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민족(民族)의 말로 쓴 책을 읽지 않고, 마흔 러시아 사람들의 말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여자들은 언제든지 포올랜드 말로 쓴 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서는 러시아 말로 쓴 책을 보고, 책상 밑에서는 몰래 포올랜드 말로 쓴 책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그 부자유함을 참고 있는, 자기 나라의 동료들의 생활을 생각하면, 마티이의 지금의 생활은 너무 행복스럽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나는 꼭 훌륭한 일을 해 보겠다. 그래서 나를 여기까



저 보게 주신 아버지와 동무들의 은혜를 갚아야지.”

그는 마을 속에 몇 번이나 이렇게 절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 반드시 훌륭한 일을 해 보겠다. 그래야만 나들이 못게 쫓아낸 제정(帝政) 러시아 정부(지금의 소비에트 사회주의 정부가 서가 전의 정부)를 이기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작오를 가슴에 품고 있는 마티이에게는, 어떠한 곤란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 다. 2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 마티이의 연구는 잘 진행되어 갔습니 다. 1894년에는 마티이는 물리학(物理學)의 학사호(學士號)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화학(化學)의 학사(學士)가 되었습니다.

“너를 훌륭한 학자로 만드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그렇게 말한 아버지의 소원은, 이렇게 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마티이의 소원은 단지 학사호(學士號)를 얻는다는 것 뿐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리프만 교수의 연구실에 남아서 연구를 계속하였습니다. 훌륭한 일을 하여 보겠다는 그의 희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때, 마티이는 어느 날 동무 집에서 한 청년 과학자를 만났습니 다. 그 사람은 자주 깃 머리카락이 키가 컸으며, 크고 맑은 눈에는 늘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듯한

조용함이 있었습니다. 생김새 같은 심하게 보였으나 상냥한 마음씨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란 이상한 것이어서 10 년이나 이웃에 살면서 조금도 더 높고 애기 못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단지 한 번 만났어도 서로 잊지 못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마티이와 이 청년 과학자는 한 번 밖에 만나지 않



았는데 되 친하여졌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더욱 두 사람을 친밀하게 하였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에는, 둘이 다 서로 상대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1895년 7월 25일, 즉 마티이는 스물 일곱 살이고, 상대의 피엘·큐우리는 서른 여섯 살 때 이 두 사람은 결혼하였습니다.

피엘·큐우리는, 1859년 5

월 15일, 파리에 가까운 시골 소오만 동네에서 의사(醫師) 우우체에누·큐우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 다. 쉘링누 대학의 이학부(理學部)를 졸업한 후 리프만 교수 밑에서 오로지 물리학(物理學)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천재적인 머리와 그칠 줄 모르는 연구심을 가진 청년 학자로서, 스무 살도 될까말까할 때, 벌써 수정(水晶)의 압전기 현상(壓

電氣 現象)을 발견하여서, 후에 상자성체(常磁性體)에 관한 큐우리의 법칙(法則)과, 강자성체(強磁性體)에 관한 큐우리의 점(點) 같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마티이를 만났을 때에는 그의 이름은 가장 장래성 있는 물리학자(物理學者)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결혼한 것은 그 후의 과학의 진보에 있어

서 축복하여야 할 일이었습니다. 만일 피엘이 다리아 부인 같은 정력과 열심성이 많은 부인을 얻을 수 없었다면 그의 훌륭한 사업도 반쯤밖에 이루지 못하고 말았을는지도 모릅니다. 만일 다리아가 피엘과 같은 권제적인 이론가(理論家)를 그 곁에 갖지 않았더라면, 그 여자의 끊임 없는 실험적 연구(實驗的 研究)도 그와 같은 훌륭한 열매를 맺지 못하였을는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았음으로써 두 사람의 틀리는 재능은 잘 융합되어 서로 보충하고, 서로 도와서 드디어 그와 같은 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혼한 그들은, 실험실에서 얼마 되지 않는 곳에다가 조그마한 집을 빌려, 거기서 통근하기로 하였습니다. 피엘의 아버지는 그 집 들레에 있는 빈 터에 꽃밭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리아와 추우렘 코스모스등 사철(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 가지 아름다운 화초들이 피어서, 하루의 일을 마치고 연구실에서 돌아오는 부부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때에도 누구나 결혼하면 으레 여행하는 것이 보통이었었는데, 그들은 여행도 그만 두고 연구에만 힘썼습니다. 그리하여 1897년 달이베에누를 낳을 무렵에, 노력은 헛되지 않아 훌륭한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즉 새로운 원소(元素) "라듐"의 발견이 그것입니다.
(계속)



칭기와 장수

옛날에 칭기와 장수가 있었는데, 그는 자기 혼자만 돈벌이 할 욕심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단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죽어 버렸다. 무슨 기술이고 저 혼자만 알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 사람에게 대해서 쓰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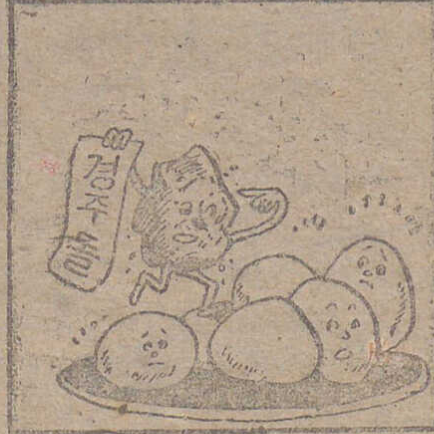
손님 밑에 가서 드는 줄은 알아도 열통에 쉬는 줄 모른다

눈 앞에 보이는 아주 작은 일이나 하찮은 것 없는 이익에는 눈이 밝아도, 큰 이익 낭패되는 줄은 모른다는 말이다. 우리는 작은 제한 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선의 장래를 위해서 힘써야 한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한다

구렁이는 물 놀림이 느리고, 다니는데 소리가 나지 않는다. 무슨 일을 하는데 말쑥하지 않고 우물쭈물하며, 언제 어떻게 갠는지 아무도 모르는 자야 슬러히 버린 때에 이렇게 말을 한다.



경주 돌이면 다 옥석인가

경주에서는 옥석이 난다. 그렇다고 해서 경주에서 나는 돌이 다 옥석은 아니다. 사람도 재가 잘 다야져 부모가 훌륭하다고 그 자식까지 다 훌륭한 것은 아니다.

(그림·김 의환)



4. 펠리칸의 주요 습

새들이 날아 도망하지 못하게 하늘에 그들을 치고 그 안에 새들이 살기 좋도록 언덕도 만들고 못도 만들고 바위들도 놓아 둔 곳으로 가 보니, 이상하게 생긴 여러 가지 새들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제일 그들의 눈에 이상스럽게 생긴 새가 있는데 몸집으로도 입이 커 크고 길다란 것처럼 보이는데 일은 비죽하지만 양코 주머니처럼 생긴 것이 특이하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새까?”

“그것이 펠리칸이란 새다. 참 이상하게도 생겼지. 이 새들의 고향은 남쪽 더운 나라 큰 강과 못이 흔한 지방에 사는 새다. 가, 자세 보아라, 공지가 없고 발가락은 오리 발처럼 붙어 있는데, 이 눈은 엄지발가락까지 붙어 있지 않나? 날개는 커다란 주머니해 보이지만 그래도 날기는 독수리보다 더 높이 날다.”

“그런데 날개를 왜 그렇게 자주만 펼까말까요?” 하고 물었다.

“침심때가 되었거든...어서 먹었다고 그러지. 아, 저것 보아라. 동물일 적이가 이 새들

침심밥을 가지고 온다.”

적이가 침심을 가지고 오는 것은 새들이 벌써 알아 차리고 새들은 그 쪽으로 날개를 펼터기다면서 뛰어 갔습니다. 적이가 생선을 던져 주는데 땅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펠리칸들이 달려 들어서 그 큰 주머니로 삼키는데 보기에 너무 탐스럽게 먹는 것 같았습니다.

“원, 저렇게도 급할까? 그거 막 새끼들이 들었구만. 쫓쫓”하고 어머니가 혀를 차셨습니다. 삼촌이,

“입이 저렇게 넓하게 생겨서 탐욕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이 새가 다른 새들보다는 그래도 제일 인정미가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니다. “저기, 저 주머니 밑에 주머니처럼 축 늘어질 때는 새끼를 위하여 음식들을 간직해 두는 주머니랍니다. 보통, 새들이 말하기를 펠리칸은 자기 피를 뽑아서 새끼에게 먹인다 하지만, 그것은 망상입니다. 아마도 주머니 밑에 새끼를 숨겨두고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새끼들 음식을 그 목주머니에 간직했다가 먹이는 것입니다. 펠리칸은 또 어부초 유명합니다. 펠리칸이 고기를 잡으러 갈 적에는 무리를 지어서 밀려가 가지고 한 때는 얕은 곳에 대기하고 저쳐서 있으면 다른 한 때는 사방에서 고기를 그러모아 옵니다. 그러면 지키고 있던 펠리칸들이 자꾸자꾸 고기를 삼켜서 목주머니 속에 넣어 두었다가 고기 물이하고 돌아온 펠리칸들과 똑 같이 나눠 먹는답니다.

“저기 저 새들도 고기 사냥을 잘한다지?” 하면서, 아버님이 저 쪽을 손가락질하셨



습니다. 직이가 그 곳으로 가서 고기를 던지고 있는 고로, 황호에 일행도 모두 그러토 뒤어 갔습니다.

“이 새는 잠수새라고 하지요?”

“그렇게! 물속에 들어 가서 고기를 잡아 먹는다지. 참 저것 보아라, 저것 보아!”

직이가 조그만 생선을 한 대야 들고 서서 한 줌씩 막 던져 주니까, 이 새들이 고개를 물 속에 박고 두 팔을 한들 한들하던 눈깜짝할 사이에, 물 속으로 들어 가서는 가라앉는 생선을 짹짹 잡아 먹습니다. 삼촌은 들고서 내려다 보다가, 입맛을 다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잠수도 잘하고 고기 사냥도 잘하는 새이지만, 아주 욕심꾸러기가 되어서 나쁩니다. 고기 사냥에 한도가 없으니깐요. 그래서 이 욕심을 이용해 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이 새로 생선을 낚아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어떻게요?” 하고, 아이들은 모두 의아스러운 눈으로 삼촌의 입을 쳐다보았습니다.

“중국 사람 생선 장수는 그 물이나, 낚시 대신으로 이 새를 사용한다. 이 새가 잠수를 하여, 물고기를 낚는 물 속에 들어 가서까지 잡아 내는 특재가 있는 고로, 중국 사람이 이 새를 걸을 들여 가지고서, 이 새 여러 마리를 배에 싣고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먼저

새의 목을 매고 물에 놓아 주면, 새가 거의 본능적으로 물 속에 뛰어들어 고기를 물면, 목을 매기 때문에 넘어는 안 가고, 그냥 그 고기를 문 채로 주인한테로 돌아 온

다. 주인은 배를 타고 가만히 앉아서 돌아 오는 새를 끌어 목에 걸린 고기를 떼어고는 또 물에 놓아 주고, 이렇게 하여서 하루에 고기를 한 배씩 잡는다고.....”

★ 어린이 과학 ★ ②

사람의 시초

지질 학자(地質學者)의 조사에 의하면 지구(地球)의 거석이 띄워져서, 두꺼운 얼음이 얼어, 바위 틈마다 큰 빙하(氷河)가 흐르던 시대가 지금까지 네 번이나 있었었습니다. 이것을 “빙하 시대(氷河時代)”라 합니다.

첫째는 지금으로부터 50만 년 전에 있었다는데, 사람은 그 전에 이 세상에 생겨났던 것입니다. 자세히 말하면 그때에 원숭이 같은 것이 사람에게 가까운 것으로 되어 있었었습니다. 그러



나 그 사람들은 그 후 없어져 버리고, 10만 년 가량 된 다음의 빙하 시대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살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들도 어떠한 모양들을 만들어 여러 가지 연장으로 썼다 합니다. 세 번째의 빙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15만 년 가량 전이었었는데, 그 빙하 시대가 끝난 후에 다른, 더욱

지금 사람에 가까운 사람이 살고 있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연장을 썼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5만 년 가량 지난 제 4 회째 빙하 시대 이후의 사람들은 완전한 돌 도끼를 만든 그릇을 쓰고,

대구나 불을 쓸 줄 알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만 5천 년 전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지금 사람과 거의 틀림 없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들은 들 그릇을

의 갈판들과 들의 표창이와 들의 도끼, 또는 갈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조각(彫刻) 등도 하며, 노래 부르기도 즐겼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농사짓는 것을 알고 쇠부처를 쓰게 된 것은 겨우 1만 년 전 가량의 일로서, 그때서부터 사람이 자꾸 자꾸 진보(進歩)하여 온 것입니다.

어린이 새소식

공부하려는 어린이 위해 중학에 야간부 신설

국립 학교를 졸업한 아동들을, 전부 들일만한 교실이 없어서, 이번에도 3만 명이나 되는, 중등학교 지원자 중, 겨우 1만 명밖에 들이지 못하고, 나머지 2만 명은 공부를 하고 싶어야 할 곳이 없는, 딱한 사정에 있으므로, 서울 시 학부국에서는, 시내 각 중학교에, 야간 중학을 계획 중이었던바, 경서(京畿) 경복(景福) 봉산(龍山) 등, 국립 학교는 이미 결정되어, 한 반에 50 명씩 15 반에 들일 아동을 모집하게 되었다 하며, 배재(培村) 휘문

(徽文) 양정(養正) 동성(東星) 중앙(中央) 중동(中東) 보성(普成) 같은 사립 중등 학교에서도 국립 학교와 발을 맞추도록 하기 위하여 방금 학부 당국에서는 힘써 이들 학교에 권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사립 중학교에서만 승락을 하게 된다면, 서울 시내 남자 중등 학교는, 전부가 국립 학교에서와 같은, 2 부제를 실시하게 될 것이므로,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없이 단념했던, 많은 아동들에게는, 이야말로 큰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게 웬일?

참새 때 3억 마리

인천 부 만수동 부근에는 지난 9월 23일부터 어디서인지 참새 때가 날아 오는데, 그 수가 2억 마리는 된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 한참 익어 가는 농작물을 닥치는 대로 해치고 있는 형편이므로, 이 보고를 받은 인천 부 관공에서는 깜짝 놀라는 한 현 어떻게 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임시 대책으로 그 근방 동네 자람들을 전부 동원시켜서 이 새 떼를 쫓게 하였으나 아무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고 한다. 1년 동안 의심을 품어 가며 지어 놓은 농작물을 뒤흔 혀가 으러 새에게 빼앗기는 이 근방 농가에서는 한숨들만 쉬고 있다고 한다. 전에

도 다른 나라에서는 새나 까마귀들이 이렇게 많이 떼를 지어 다니며 농작물을 해친다는 말을 들은 일이 있으나, 우리 조선에는 처음 보는 일일 것이라고 한다.

종이를 많이 만들게 된다

일전에 과도 정부 상무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지금 남조선에는 종이가 워 모자라서 일반 출판은 물론이요, 사무 상에도 지장이 많으므로, 어떻게든지 종이를 많이 만들게 하고자, 서울 시의 북도면 광장리(廣壯里)에 있는 동양 제지 화학 공업 회사에, 해방 전에 일본에서 소개해 온 기계를 불하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동 회사에서는 곧 공장을 새로 꾸미고, 기계를 장치하는 중인데 멀지 않아 일을 시작하리라고 한다. 일이 시작되면 하루에 10 천

내지 20 천의 "탈프"를 만들어 낼 것인데, 이것은 남조선에서는 제일 큰 종이 공장이라고 한다.

제자를 구하려다 선생님까지 불 속으로

전남 법성포 여자 중학교에서 는 하기 방학을 이용하여, 영광(靈光)해수욕장에서 해염치기 연습을 하던중, 8월 18일 오후 1시 반경, 학생 몇 명이 썰물에 휩쓸려 떠내려 가는 것을 구해 내려고 하다가 선생님과 학생 6 명이 빠져 죽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선생님 최(崔)씨는, 임신 7개월의 무거운 몸인데도 불구하고, 물속에서 허덕이는 제자를 구하려고 하다가 그만 이러한 참연을 당한 것인데, 이것은 물론 자기의 책임감도 있겠지만 제자를 사랑하는 성스러운 마음에서 나타난 자기 희생이었을 것이리라.

러치 군정 장관 별세

아놀드 소장의 뒤를 이어 남조선 민군정 장관으로 오셔서, 조선 건설을 위하여 발발을 가머지 않고 노력하시다가, 전부터 고생하시던 신형이 갑자기 도져서, 지난 9월 11일에 세상을 떠나셨다. 장례식은 다섯 주인 16일에 판문수만 군중이 모인 가운데, 군정청 앞 마당에서 거행되었다.

동물 식물의 이름 한글로 고쳤다

조선 생물 학회(朝鮮生物學會)에서는 해방 이후, 생물에 관한 갈갈(學術語)과 동물(動物) 식물(植物)들의 이름을 우리말로 고쳐치려고, 2백 명이 넘는 회원들이 2년 동안 애써 보람이 있어, 전부 고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을 결정하기 까지는 회

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구 조사한 것을, 동생들 학회 심사회에서 자세히 검토한 후 통과된 것이라고 한다.

들어만가는 서울 인구

달로 들어가는 서울 시내의 인구는, 8월 말 현재로 말 때급 등장에 나타난 숫자로 보면, 1,565,111 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 숫자는 작년 5월 현재 1,063,892 명보다 1년 3개월 동안에 약 50만 명이라는, 놀랄만한 굉장한 수입에, 이렇게 많이 늘게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리라고 한다.

어느 편이 옳을까?

지구에 대한 새 학설

조선 만국 지리학 연맹 총장 레부·멜그 씨는, 아메리카 대륙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갈라져 다루 밀려 나갔다는 설은 틀린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프리카 해안과 미주(美洲) 동쪽 해안의 구불구불한 선이, 서로 합쳐되는 점이 많은 것을 보아, 미주는 아프리카와 유수들 대륙에서 따로 떨어져, 각각(地殼) 하부의 유난층(柔軟層)을 타고 이동하였다는 설이 유행되고 있는데, 요즘 실지로 시험해 본 결과에 의하면, 지구는 일반적으로 고체(固體)이며, 유난부는 분리하여 지구의 중심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리고 레시양 남북을 통하여, (남위-南緯-55 도로부터 아이스랜드에 이르기까지) 전에는 전부 지상의 산맥이었던 것이, 현재는 해심(海深) 약 1천 3 백 미터에 갈아 앉았으며, 그 산맥선이 양 대륙 해안선과 거의 일치 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 미 대륙이 이동하였다는 것보다, 레시양의 육지가 그만큼 갈아 앉았다고 하는 것이 더 옳은 학설이라고 하겠다."

★ 스포츠는 뉴우쓰 ★

런던 올림픽 대회

—스플레 나라가 참가—

내년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제 14 회 올림픽 대회에 참가코자, 지난 6월에 조선 대표로 이원순(李元淳) 씨가 출석하여, 조선도 올림픽에 참가하도록 많은 힘을 쓰신 결과, 지난번 정식으로 런던 올림픽 조직 위원회(K.O.C)의 초청이 있었다. 또 이번엔 런던 올림픽 조직 위원회에서 발행한 8월 뉴우쓰에 의하면 조선 참가를 정식 접수하였다는 것을 발표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내년 올림픽에 참가를 신청한 나라는 41 개 국이나 되었으나 그 중 24 개 국이 참가하게 되었으며, 참가인원 수는 지금까지 4 천 명이 넘었다고 한다. 이번까지 선수가 제일 많이 참가한 올림픽 대회는 제 11 회 베를린 대

회인데, 그 때에 참가한 수는 1,959 명이었다고 하며, 내년 대회가 가장 많은 인원이 동원될 것이라고 예측되며, 세계 올림픽 대회 중 가장 많은 인가를 끌 것이라고 한다.

세계 역사들을 둘러치고

조선이 두재

지난 9월 28일 미국 피라델피아에서 열린, 세계 역도(力道)선수권 대회에 조선 대표로 김성집(金成集)·남수일(南壽逸)·박동숙(朴東勳) 세 선수가 참가하였는데, 남수일은 "핵자" 급에 있어서 두재를 하였으며, 김성집은 "중체량" 급에서 세계를 하였으므로, 결국 조선은 총득점 합계에 있어서 세계에서 두재를 해서, 또한 한 조선 정년의 기계를 세계에 떨쳤다. 그런데 첫째는 미국이 획득하였다.

남작해진 일본 천황

지금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미소공동 위원회 미국측 정치 고문으로, 20 여 년만에 고국에 돌아온 장 태도(姜濤模) 박사는 해방 후 일본 동경 극동 군사 재판소(極東軍事裁判所)에 근무 중, 일본 천황 유인(裕仁)과 서로 만나서, 이야기한 인상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고 한다.

"내가 처음 유인(裕仁)과 인사를 하면서 "히로히토상, 와다시와 초오켄진 데쓰오" 하니까, 유인은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면서, "사후에 고자(高子)마쓰카, 반지 쇼로시쿠 오네가이 시마쓰"라고 하였다. 나는 이러한 유인의 태도를 보고 예전에 동경에서

공부하던 때를 떠올려 생각하니 감회가 단순치 않을 줄 느꼈다"

★

그런데, 한편 그 러수에 끼는 천황 노릇을 하고 있어서 일본이 항복 후 지금까지 "내가 정말 천황이다"하고 나선 자가 셋이나 된다고 한다. 전 같으면 천황은 신이라고 하여 감히 그 일종도 두루히 못 쳐다 보고, 만일 천황에 대한 이야기만 잘못 해도,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던 일을 생각하면, 이것도 일본이 민주주의 나라가 된 덕대이라고 할까? 천황 유인(裕仁)이 귀신의 집집을 벗은 탓이라고 할까? 하여간 재미 있는 이야기다.

빈 병 이용하는 법

입 문 영

여러 분들 가정에는 비루 병이나 사약 병이 많이 있지요? 이것들은 우리 가정에서 꼭 소중한 쓰이고 있습니다. 간장병으로 혹은 각종 병 등 여러 가지 병을 낫게 하지 않습니까? 그 뿐 아니라 병 사터 다니는 사람에게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험한 있으면 사 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버려 두어도 아까우니 달걀 쓸 도리를 연구해 보기로 합시다.

(1) 비루병으로 꽃병

비루병을 적당히 잘라서 꽃병을 만드는 것이니까, 먼

저 그 자르는 법부터 아드카 드려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비루병의 밑에서부터 한 7, 8cm쯤 위를 자르기도 합니다. 위선 가는



형질을 잘게 표아 가지고, 식유에 적신 다음, 그것을 자를 때에다 맨듯이 한 바퀴 돌려 맵니다. 그 다음에 따 당 한 가운데서 그 심지에

불을 붙입니다. 그 때에 온 그림과 같이 비루병 주둥이를 쥐고 병을 평평히 들어서, 불이 교루 불도록 한 바퀴 돌립니다. 그래서 적당히 뜨거워졌을 지음에 불을 붙여서 고고 열은 소까락에 불을 뭍쳐서 그 심지 맨 자리에 두 서너 방울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하면 뜨거워진 곳이 불 때문에 갑자기 식게 되니까, 똑 소리가 나면서 맨듯이 잘라집니다. 이것은 아무 위험한 일이 아니니 안심하고 실험해 보십시오.

그러고 그 자른 자리를 들로 갈아서 손이 버지지 않도록 한 다음, 다시 그 자른 자리에 유타 끼는 사람들이 쓰는 "파헤"라는 것을 갈이나 대쪽으로 모양 있게 밀라서, 한 1 주일 동안 말립니다. 그 다음 "에나멜"이나 "락카"를 붓으로 적어서 그림을 그디면 훌륭한 꽃병이 됩니다.

"내가 건너 온 들은 저기 내려갔으니 이 물이 얼마나 깊은지 모르겠소. 하며 옷을 입고 급히 가 버립니다. (설을 일진교 탁 종철)

○애꾸눈
애꾸눈 (극장 표 파는 곳에서)
"입장료 얼마요?"
사무원 "50 원예요."
애꾸눈 "그럼 요금을 반환합시다."
사무원 "왜요?"
애꾸눈 "나는 애꾸니까 한 눈으로만 구경할터이니 밀려잔 말이요."
사무원 "?" (서를 망산고 고기 락)



아들 "저 정신 일을 접질하는 것 보니까 아파 병난 정신인가 봐." (서울 명륜동 83 이 선회)

○송 서방의 대답

송 서방이 냇물을 건너고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지면에서 한 자릿야 송 서방을 보고 "여보 이 냇물이 얼마나 깊습니까?" 하고 물으니, 송 서방이 대답하기를

○병난 생선
아들 "어머니 저 생선은 사지마세요."
어머니 "어째서, 송?"

○팍
두 생도가 어름에 작난을 하고 놀다가 팍이 풀시 바니까 햇 벌이 쨍쨍 난 운동장에 나가 쨍쨍 습니다. 선생님이 하도 이상해서 선생님 "왜 팍을 흘리면서 그 뜨거운 햇 벌을 쪼이고 쨍느냐?"
생도 "팍을 밀러려고 쨍쨍습죠."
선생님 "?" (서울 효제교 2의 4 고 기순)

속기 쉬운 우리 눈

(우리들의 눈은 얼마나 속기 쉬운 것인가?)
 밑에 그림으로 한 번 시험해 보십시오.)



1과 6과 7은 줄이 된 것 같이 보이나, 사실은 쪽
 끈은 것입니다. 3은 세모꼴(三角形)이 비뚜르게,
 4에서는 원(圓)이 비뚜르게 보이나, 사실로는 비뚜
 러진 것이 아닙니다. 2는 위 그림 가운데 동그라
 미와 아랫 그림 가운데 동그라미와 똑같은 것인데,
 아랫것이 크게 보입니다. 5는 이 책을 들고 들러

면, 바퀴들이 뱅뱅 돕니다. 8은 원 편 그림 속에 있
 는 별을 한 1분 동안 들여다 본 다음 오른편 그림
 을 보면, 흰 별이 나타나 보입니다. 9와 10은 1, 2분
 동안 보코 있으려면 갑자기 위와 아래가 뒤집혀 버
 립니다.

동화 "나 몰라"의 죽음 고 한 승

어떤 중국 소년이 아버지를 떠나 평생 처음으로 조선 구경을 왔습니다.

이 중국 소년은 조선 사람을 처음 볼 뿐만 아니라 조선 말을 단 한 마디도 모릅니다.

어느 날 소년은 변화한 서울 거리를 이리저리 구경을 다니다가 어떤 굉장히 큰 집을 보았습니다. 백 잔도 넘을 듯한 고래 등 짙은 기와집에 높은 초승달문이 달려 있고, 문 앞에는 마차와 자동차까지 놓여 있습니다.

"참 굉장히 큰 집이다. 아마 조선에서 제일 가는 부자의 집인 모양인데, 대체 이 집 주인이 누구람?" 하고 소년은 혼자 생각하면서 한참 동안 집 구경을 하고 있다가 마침 지나가는 어떤 젊은 조선 사람을 보고,

"이 집 주인 이름이 누구람니까?" 하고 중국 말로 물었습니다.

그 조선 사람은 그 때 자기의 동생이 병원에 입원하여 있다가 병이 위중하다는 전화를 받고, 대단히 걱정을 하면서 급히 병원으로 가는 길이라, 중국 소년과 이야기

할 정신이 없을 뿐 아니라 원래 중국 말은 한 마디도 모르는 사람이었으므로,

"나 몰라!" 하고 간단히 대답하고 가 버렸습니다.

조선 말을 모르는 중국 소년은,

"나 몰라! 하하 이 집이 나 몰라라는 사람이 사는 집이로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걸어 갔습니다.

그 이튿날 중국 소년은 전차를 타고 한강까지 구경을 나갔습니다. 맑고 아름다운 한강 물을 내려다 보고 있는데, 그때 마침 배수 십척이 곡식 가마니를 가득 싣고 들어 왔습니다. 그러더니 몇 천 석이나 되는 쌀을 배에서 내려 가지고는 트럭에 싣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중국 소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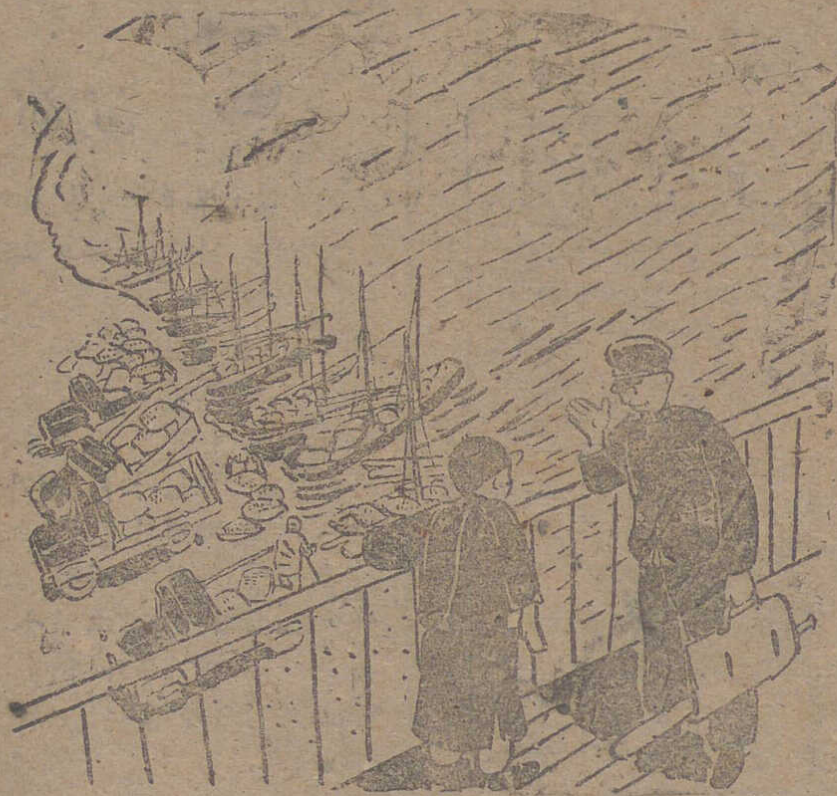
"야! 쌀도 굉장히 많다. 저 쌀과 저 배가 다 누구의 것일까?" 하고 몹시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어떤 중학교 학생을 보고,

"여보세요. 저 많은 배와 저 쌀 입자는 누구니까?" 하고 중국 말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학생이 중국 말을 알아 들을 수가 없나요? 더구나 그 학생은 지금 다른 중학교와 야구 시합을 하는데, 시간을 맞추어 가는





길이므로 중국 소년과 이야기 할 틈도 없었으니까,
 “나 몰라!” 하고 간단히 대답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나 몰라! 음지나 나 몰라라는 사람은 정말 부자로구나! 그렇게 큰 집을 가지고 또 저렇게 많은 배를 부리고 몇천 석 쌀을 가졌으니……” 하고 대단히 부러워 하였습니다.

며칠 뒤에 중국 소년은 랍플 공원을 구경하고 동대문까지 나가다가, 굉장한 장례의 행렬을 보았습니다. 상여는 고운 꽃

으로 장식을 하였고 그 뒤에는 굴판 제복한 상체가 마차를 타고 따르고, 또 그 뒤에는 예복을 입은 신사들이 자동차로 따르고 또 중들은 맨적편적하는 가사를 메고 불



경을 의면서 나갑니다.

이 정숙하고도 화려한 장례를 평생 처음 보는 중국 소년은,

“아 어떤 사람이 죽었길래 저렇게 굉장한 장사를 지낼까?” 하고, 옆에 서 있는 노인에게 누가 죽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인은 중국 말은 한 마디도 모를 뿐 아니라 며칠 전에 사망하는 손자가 죽었으므로, 지금 남의 양어가 가는 것만 봐도, 죽은 손자 생각이 나서 눈물이 글성글성하는 판이라 옆에서 누가 말을 거는 것도 귀찮기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은,

“나 몰라!” 하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중국 소년은,

“나 몰라! 나 몰라 씨가 죽었구나. 아아 그렇게 좋은 집과, 그렇게 많은 돈을 다 버리고 나 몰라 씨가 죽었구나?” 하고, 슬픈 눈물을 흘리며 상여 뒤를 따라 갔습니다. (그림·정현웅)

★ 크로스워드 풀기 ★

재 문 제

1	2			3		4
거	제	도		나		연
5			6	7		
미	국		양	귀	비	꽃
	8	9			10	
	주	사	약		행	
11				11		12
신	의	주		봉	선	화
		13				
문		장	갑			장
	14			15	16	
	송	이		수	입	품
17			18			
지	도		망	원	경	

[길어로 푸는 열쇠]

- ① 나뭇가지나 추녀에 그물 같은 집을 지어 놓고, 벌레가 걸리던 피를 빨아 먹고 사는 벌레 이름.
- ② 일본은 항복하기 전까지 무슨 주의의 지지를 하였나? 군국주의는 그런 두고.
- ③ 땅나귀를 표준말로 뭐라고 하나?
- ④ 연못(池)에 피는 제일 크고 아름다운 꽃.
- ⑤ 예전부터 우리가 쓰던 약을 한 약이라고 하는데, 서양서 들어온 약은?
- ⑥ 하늘을 떠 다니는 것인데, 비행기보다 크고 배같이 생긴 것?
- ⑦ 자루를 봐 주고 돈을 벌어서 사는 사람.
- ⑧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 또는 새로운 지식을 질어서 날라가 말행하는 일체물.
- ⑨ 얼굴을 골개 하기 위하여 쓰는

물건들

- ⑩ 개성(開城)의 땅 이름.
- ⑪ 농과 대학이 경기도에 있는데 어딘가?
- ⑫ 서울로 들어 오는 것을 뭐라고 하나?

[가로 푸는 열쇠]

- ① 일진 왜난 때 바다 싸움으로 유명한 마산(馬山) 남쪽에 있는 제일 큰 섬.
- ② 웨드미야 중장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
- ③ 아편(阿片)을 만드는데 쓰는 식물꽃을 뭐라고 하나?
- ④ 혈관이나 피부에 침으로 들여 보내는 약.
- ⑤ 압록강 하류에 있는 제일 큰 도시.
- ⑥ 여름에 골개 피는 꽃인데 어린 여자들이 손톱에 붉게 물들이는 꽃. (49 페이지에 계속)



✓ 튜우브 쓰는 법

이 닦는 약이나 구두 약이 들어 있는 튜우브는 모리 있게 쓰지 않으면 헛내버리는 것이 많게 됩니다. 이것을 조금도 남기지 않고 말끔히 써 버리려면 선필이나 젓가락 같은 둥근 막대기에 이 그림처럼 감아 가지고 짜서 쓰면 아주 쉽상입니다. 그런데 말 때 비두로 만다든가 하면 도리어 덩어리가 지니 조롭해 마십시오.



✓ 걸레질 잘 치는 법

걸레질 칠 때, 걸레를 하나만 가지고 치면 빨 때마다 통의 물을 갈지 않으면 깨끗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걸레를 다섯 개나 여섯 개



한꺼번에 빨아 놓읍시다. 그랬다가 너털는 대로 새 것하고 바꿔 쓰십시오. 소제도 깨끗

뜻하게 되고 물을 가는 시간
이나 수고도 덜리고, 크리고
결례가 오래 잡니다.

화초에 물을 달걀 껍질

화초에는 여러 가지 비료가
필요하지만 달걀 껍질도 상
당한 거름이 됩니다. 달걀



껍질을 모아서 콧대 뽀얗게
다듬은 다음 물에 2,3일간 담
갔다 그 물을 화초에 주면,
꼭 잘 자라게 됩니다.

공부하고 나서는 뛰놀자

어린이는 어른과 달라서 늘
활발하게 운동을 해야 합니
다. 운동을 않거나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으면, 심장이
약해지고 따라서 몸 전체의
발육이 잘 안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보약보다
더 충분히 뛰어 다니며 노는
것이 몸을 튼튼히 하는데 제
일 좋습니다.



(문) 칙칙박사
님, 안녕하십니
까? 그 후도 여
전하시겠지요.
자, 그럼 하나
물겠습니다. 배

체 하늘에 개가 새 다리 있는 것
이 무엇인지 알아 보세요. 왜 이
렇게 생겨부터 찢찢 매듭니까?
모르시면 그런 두십시오. (서울 망
산고 고기덕)

(답) 아, 이건 아침 개시로 까다
로운 문제가 걸려 들었는걸. 그러
나 이것쯤이야. 하늘에 개가 셋이
니까 무지개, 솔개, 안개지 뭐가.
(칙칙박사)

(문) 칙칙박사 할아버지 처음 뵈
겠습니다. 듣기에는 영감님이 옥
술장이보다도 더 용하시거든요.
서던 두 가지만 물겠습니다. 새

알 처음으로 하나, 한 달 들이 꽃
이. 여기 있는데, 무슨 꽃인지 아
십니까? 그리고 다음 문제로 학
생들이 산에 갔다감길 안개 들이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습
니다. 한 학생이 돌 위로 올라가

고개를 내 밀고 보니까, 그 넘어
로 길이 있었습니. 그래서 학생
들은 돌을 들어서 갔다고 합니
다. 학생들이 돌을 싸고 어느 뻘

으로 돌아 갔겠
습니까? 아무
러용하시더라도
이것을 무시하
면 만개나 혼리
실걸요. (서울
명륜동 1가 이
선회)

(답) 가만 앉자,
하하 한 알 들
이 꽃이면 백합
(百合) 꽃이로
군. 또 학생들이
돌 위에서 보고
길을 찾아 갔다
니까, 돌 우면



오른 우(右) 자
가 되니, 오른
쪽으로 갔을 것
은 틀릴 없겠지
(칙칙박사)

(문) 칙칙박사님
필에서 나가라고 제촉을 하면 큰
은 놈들이 이르 막 노망을 잡니
다. 이게 무엇일까요? (서병
(답) "동그"를 지우는데. (칙
칙박사)

(문) 우물에 새끼를 곱쳐 넣으면
우물 밑으로 새 발이 모자라고,
새끼를 되 넣으면 우물 위로 새
발이 남습니다. 우물 깊이는 몇
발이고, 새끼는 몇 발일니까?

(광주 김인수)
(답) 우물 깊이는 아홉 자고, 새
끼 길이는 열 두 자. (칙칙박사)

- (18 페이지에서 계속)
- ㉓ 겨울에 손에 끼는 물건.
 - ㉔ 산에서 나고 향기가 좋은
버섯.
 - ㉕ 다른 나라에 보내는 물건을
수출물이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사들이는 물건은?
 - ㉖ 땅의 모양과 크기 그 이름 같
은 것을 나타내는 그림.
 - ㉗ 먼 데 것을 크고 뚜렷하게 보
는 안경.

(크로스워드 풀기 제 50 호 대답)

1 동	2 대	3 문	4 과	5 출	6 소
7 땀	8 추	9 석	10 수	11 강	12 이
13 과	14 두	15 병	16 탄		
17 엄	18 구	19 령	20 이	21 간	
		22 이	23 모	24 강	25 대
26 태	27 한	28 부	29 인	30 병	31 원
32 금	33 강	34 산	35 부		36 수

소학생 주력부



△“소학생”을 길러 주시는 여러 선생님, 모두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소학생” 8월치 36 페이지 가운데에 써 있는, 400억을 세력던 밥 낱을 쉬지 않고 개어도, 800년이나 걸린다고 하니, 정말 그렇게 걸립니까? 궁금하으니 곧 알으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선생님 안녕히 재십시오. (서울 일신교 탁 중철)

△정말이랍니다. (기자)

△나의 영원한 벗 “소학생”을 만들어 주시는 기자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소학생” 8월치에 걸린 과학과 과학 정진”은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과학에 관한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그럼 부다 안녕히. (서울 두학교 임 창섭)

△여러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한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저희들 여자에게 필요한 것을 내 주문 수는 없겠습니까? 예를 들면 가사에 관한 것, 수 놓는 것 등입니다. (대전 대흥교 6 이 영자)

△수리 선생님, 또 여러 동무들, 이번 처음 “소학생 주력부”를 통해서 인사 드리겠습니다. 우리들 동무 “월간 소학생”은 참으로 재미 있습니다. 이 다음에라도 소년 과학을 많이 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대전 대흥교 문 두원)

△물론 소학생들의 지식이 될 것이라든 앞으로 더욱 많이 실겠습니다. (기자)

△여러 기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소학생”을 만들어 내시느라

고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저는 나날이 붙어 가는 “소학생”과의 친밀감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편편지지 않은 것을 볼 것입니다. 1마일은 몇 Km 이나 되는지 알려 주십시오. 그럼 안녕히. (서울 방산교 고 기덕)

△1,6093 Km. (1609m 30cm) 마일이라는 것은 영국에서 나온 말인데, 그것은 영국 육지의 거리의 단위(單位)로 되어 있습니다. (기자)

△선생님들 날마다 “소학생”을 길러 내시기에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7월치는 띄우지 않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자 진문, 신천지(新天地) 같은 데 “소학생”이 나왔다고 광고는 나도, 정작 우리 손에 들어 오는 것은 훨씬 뒤입니다. 때로는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 아침으로 주문하면 보내 주시겠습니까? 또한 가지 6월치를 아직 보지 못했으니, 이것도 주문하면 보내 주시겠습니까? 보내 주시게 되면 값과 송료를 알려 주십시오. (대전 대흥교 6 송 기호)

△지방에는 우편 연락 관계로 광고보와 늦을 적이 많습니다. 그러고 값 40 원과 송료 6 원과, 모두 46 원을 보내 주시면, 책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보내드립니다. 6월치는 벌써 다 팔렸습니다. (기자)

△기자 선생님, 고기압과 저기압이란 무엇입니까? (송 익영)

△“소학생” 5월치와 7월치에 자세히 써 있습니다. (기자)

“진정한 정진은 진정한 육체에 만 있을 수 있다.”는 옛말이 있다. 자질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평량하지 못하고 우울하며, 무슨 일에도 지 쉬 실증이 나고, 모든 일에 자신과 용기가 없어진다. 공부할 관해서 훌륭한 일을 시작해 놓고도 몸이 약해서, 그것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도중에 죽어 버린 사람들이 적 많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얼마나 아까운 일인가? 공부도 어려워 열심히 해야 하는 것과 같이 몸도 어려워 튼튼히 만들어 가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사이는 어느 나라에서도 스포츠를 멀리 장려하고, 여러 가지 대회도 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운동을 할 때에는 무슨 기록을 내기 위함보다 자기 몸을 튼튼히 하기 위함이라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된다. 만일 스포츠가 무슨 기록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면 힘이 약하고 뛰는데 서투른 사람은 애당초 스포츠에서 떠나야 할 것이 아닌가? 물론 소질이 있는 사람은 국제 무대에 나아가 조국의 명예를 걸고 싸우는 것도 장쾌한 일이다. (김 은정)

1947年 10月 1日 發行
 소학생 · 값 40 원
 10월치 * 제 51 호
 編輯兼發行人 尹石重
 印刷人 主幹
 朝鮮兒童文化協會發行
 서울 鍾路 2街 永保 樓
 電話 [光] 3970番 · 3492番
 總發賣 乙酉文化社
 振替 京城 32543番
 小賣店 * 文章閣 * 鍾路 2街



낫의 내력

①곡식을 베기 위하여 원시인이 처음 만든 낫. ②낫으로 곡식을 베는 것. ③로마의 농민들이 쓰던 큰 낫. ④는 그것을 개량한 것이고, ⑤는 18세기 미국에 생긴



구레들의 큰 낫이다. ⑥더 많이 썩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구레들의 큰 낫을 개량한 것. ⑦2천 년

전에 고오루 사람들이 쓰던 것이고, ⑧그것을 참고로 해서 만든 하체이식 곡식을 거두는 기계가 19세기에 미국에 생겼다. ⑨혼자서도 능히 부릴 수 있는 것이고, ⑩자동적으로 곡식을 베어서 땅에 떨어뜨리게까지 된 편리한 기계.



아협 발행의 좋은 책들

책 읽기 좋은 시절이 왔습니다

우리 "아협" (조선 아동 문화 협회)에서는 언제나 어린이 여러 분을 위하여 많은 책을 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워낙 종이 값이 비싸서 많이 박이지 못하는 데다가 값이 다른 데 책보다 훨씬 싸므로 나오기가 무섭게 휘박휘박 없어지고 맙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못사 본 독자를 위하여 다만 얼마큼씩이라도 다시 박여서 발행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 그 때를 기다리시고 지금 조금씩 남아 있는 책은 즉시 주문하시어 사 두시도록 하기 바랍니다.

★지금 살 수 있는 책★

<p>현 덕 선생 지은 도끼 삼 형제 김 진섭 선생 그림·재미 있는 동화집 값 40 원(지방 송료 5 원)</p>	<p>김 의환 선생 그린 겉리버 여행기 정성 들여 그린 그림이 96 장이나 있다 값 40 원(지방 송료 5 원)</p>
<p>이 영철 선생 지은 틀리기 쉬운 말 이 책 한 권으로 한글 맞춤법은 우등 값 80 원(지방 송료 5 원)</p>	<p>김 용환 선생 그린 도끼 전 유명한 "별주부" 이야기를 민화로 꾸민 책 값 40 원(지방 송료 5 원)</p>

★멀지 않아 나올 새 책★

<p>방 정환 선생 꾸민 귀 먹은 집오리 소과 동화 독본 제 4 집 값은 아직 정하지 않음</p>	<p>정 현웅 선생 그린 로빈슨 크루소 사람이 살지 않으면 곳에서 생긴 모험 이야기 값은 아직 정하지 않음</p>
---	--

주분 하실 곳 = 서울 鍾路 永保 號 乙酉 文化 社 振替 京城 32543番

서울 **조선 아동 문화 협회** 발행

연극 88-19